

'6월 G7 정상회의 참석' 문 대통령 부부, 코로나 AZ 백신 접종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필수목적 출국 위한 예방접종 절차'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이날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첫 날이다.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시행됐다.

이 절차에 따르면 ▲공무상 국외 출장, 해외파병군인, 재외공관 파견 등 국방·외교 등 국외와 직결되는 업무 수행 ▲공익목적, 중요한 경제 활동(국외·사회적 시급성) 등을 위해 단기(3개월 이내) 국외 방문하는 경우 각 부처의 심사와 질병청의 승인 절차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종로구 보건소를 G7 출국 대표단 예방접종 실시기관으로 지정했고, 문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 전담병원(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기보다는 다른 대표단 구성원들과 함께 접종을 희망함에 따라 이곳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 9명이 동행해 접종을

받았다. 이날 문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 11명이 함께 접종을 받는 것은 접종 현장에서 폐기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량도 활용하라는 방침에

따라 접종기관인 종로구 보건소에서 1바이알(병)당 11도즈(회) 접종이 가능하다고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 내외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성 논란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계획 발표(2월 15일)시 만 65세 미만(2월 26일~), 요양병원·요양 시설 입원자·입소자 및 종사자)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성에 대한 영국, 스코틀랜드 등 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5일 '2분기 접종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나라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최광수기자

이용호 의원, 「지역협동조합 육성법」 대표발의!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협동조합을 육성하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3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협동조합의 자주적 육성과 그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협동조합 육성법」(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협동조합 등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협동조합 등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과 관련 교육훈련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유형별 협동조합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활성화 되어 정책개발이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면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중심으로 전통제조업에 기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중(異種)협동조합에 비해 그 규모가 영세하고 소규모여서 다른 협동조합과 함께 발전하기에는 육성 여건



부터 조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협동조합은 19,440개로 매년 약 2,5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중심의 사회적협동조합은 15%에도 못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이용호 의원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지원시책부터 수립해야 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다 되도록 그 법적근거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협동조합 등의 자주적인 육성과 그 역량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정보제공 등이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출기자

서울시, 작년 '빛공해' 민원 1년새 14.9% 감소... '25년까지 초과율 절반으로

국내 최초 서울전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공간·장식조명은 '좋은빛위원회' 심의

서울시는 2020년 빛공해 관련 민원이 2019년 대비 14.9% 감소했다고 밝혔다.

빛공해 민원 건수는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8년 정점을 찍었지만 2019년 2,168건, 2020년 1,844건으로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

2014년 1,571건 → 2016년 2,043건 → 2018년 2,577건 → 2019년 2,168건 → 2020년 1,844건이다.

서울시는 빛 공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됐고 시 옥외간판·전광판 LED조명 교체, 노후화된 가로등·보안등 개선 등 시가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생활 속 빛공해 저감사업이 실질적 빛공해 감소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2020년 빛공해 피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 수면장애가 1,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생활불편 354건, 눈부심 333건, 기타 50건 등으로 나타났다.

발생 유형별로는 공간조명 829건, 광고조명 560건, 기타조명 291건,

장식조명 120건, 옥외 전광판 44건이 발생했다.

공간조명, 광고조명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시민들의 빛공해 체감률이 높다.

공간조명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이다.

광고조명은 광고를 목적으로 옥외 공간에 설치한 전광판, 옥외간판 등을 말한다.

기타조명은 체육시설, 종교시설, 주요소 조명시설 등이 있다.

기타조명은 현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대상이지만 최근 빛공해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는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기타조명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빛공해 저감을 위해 LED 간판 교체사업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좋은빛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시

민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생활 속 빛공해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LED간판 교체사업, 2012년부터는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을 자치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옥외 간판 32,071개소, 노후 보안등 48,156개를 개선했다.

기존의 저효율 방전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해 빛공해 저감과 함께 에너지를 절감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했다.

에너지 절감 : 보안등 2,407kW, 간판 19,884kW, 총 22MW 절감
온실가스 감축 : 보안등 4,430t/년, 간판 39,931t/년, 총 44kt/년 감축
2015년 6월에는 국내 최초로 서울시 전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다양한 빛공해 저감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이전보다 빛공해가 8.1% 감소

했다고 설명했다.

건강하고 쾌적한 좋은 빛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15년부터 공간·장식조명은 설계단계에서 '좋은빛위원회'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빛공해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1년부터 '좋은빛상', '빛공해 사진·UCC 공모전', '좋은간판 공모전' 등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빛공해 사진·UCC는 6,433건, 좋은간판 공모전은 1,349건이 접수돼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민들의 빛공해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0년 서울시는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차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25년까지 '시민과 함께 여는 건강하고 쾌적한 좋은 빛 서울'



이란 비전 아래, 빛공해 초과율 50% 저감을 목표로 야간 시민 주거공간 보호 체계적인 빛공해 관리체계 구축 좋은빛 공간 구축 좋은빛 홍보 및 교육개선 대책을 마련,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환경부의 2019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그동안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빛공

해 예방과 좋은 빛 형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다.

이문주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2차 빛공해 방지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빛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불편 해소와 함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감사패 수상 및 자문위원 위촉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은 22일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장 이·취임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하고 자문위원으로 재위촉됐다.

1989년 창립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국민의 정신 혁명을 선도하는 국민운동단체로 30여 년간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발전과 화합에 앞장섰으며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 대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대운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의 기본이념인 진실, 질서 화합

의 3대 이념을 널리 알리고 이념 실천을 위해 지역 내에서의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는 등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명시 협의회를 대표해 김포중 회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또한 정 의원은 광명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오랜 기간 생활정치인으로서 광명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신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에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는 등 그간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성과를 인정받아 자문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정대운 의원은 "가정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사회의 도덕성 회복운동에 앞장서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떠나시는 고복현 회장님의 그간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주신 감사패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대신해 받은 것이라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송구한 마음"이며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광명시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광명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수/기자

유승민 IOC 위원 등 스포츠계 인사 37명 악성댓글 피해구제법' 지지성명 발표

"충고 넘은 인격모독성 비난 등 악성댓글은 선수에게 치명적"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을 포함한 국내 스포츠계 인사 37명은 23일 포털 등 정보통신망 상의 악성댓글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악성댓글 피해구제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운동선수의 경기력은 신체적 단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선수들에게 충고를 넘여선 인격 모독성 비난,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여론몰이식 루머 확산 등은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운동선수들도 인간이다. 하루하루 선수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되새기며 많은 부분을 감내하는 선수들을 위해 심각한 악성댓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악성댓글 피해구제법'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더 강력한 방지책을 만들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포털) 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댓글로 인해 심리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 피해 당사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에게 해당 댓글 게시판에 한해 운영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포털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공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양 의원은 "그동안 악성댓글로 인해 연예인은 물론 스포츠 선수들이 극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구제'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시키려 노력했지만 필요할 경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성명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은 유승민 IOC위원을 비롯해 이태현 용인대 교수(전 씨름 천하장사), 정지현 레슬링 국가대표팀 코치(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배영 한국체육지도자연맹 사무총장



(2004년 아테네올림픽 역도 은메달리스트), 남유선 경기도수영연맹이사(전 수영 국가대표), 한민수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코치(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동메달리스트) 등 37명이다.

유승민 IOC위원은 지난해 8월 한 여자배구 선수가 생전에 악플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인터넷 포털 스포츠 뉴스의 댓글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바 있다.

전순희/기자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건강안보도시 서울'구축을 위한 초석 마련의 장 만들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이번 사태가 향후 보건 정책분야에 시사하는 바를 토대로 관련 분야의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 24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불러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안보'의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을 짚어보는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대두된 공공의료의 역할 과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건강도시 안전망'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다.

당일 발제는 '포스트코로나시대, 건강안보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순으로 진행되며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원장,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정재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본부장이 발제문을 토대로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다.

토론회는 2021년 3월 24일 오후 3시부터 YouTub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YouTube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 / 제2대회의실"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광수/기자



김윤덕 국회의원, LH투기 의혹 사건 관련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씩어가는 환부' 도려낼 것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은 최근 불거진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드린 것에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정치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일로 야기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는 뜻을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수차례의 긴급대책 회의와 현안 논의의 결과물로 지난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국토위에서 의결했고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의 통과만을 앞둔 상태라 말했다.

더불어 공직자들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투기 방지 5법' 등의 추가 입법 역시 여·야의 협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상시 감독하는 기구와 주택부 신설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빈틈없는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일을 통해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동희/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홍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 부: 내선 (112) 문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 가50146 사회 부: 내선 (113) 부동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 부: 내선 (114) 오피니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 부: 내선 (115) 지방 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 스: 02)2060-4147 구독신청, 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풍요로움이 주렁~주렁~

여기는 영양군입니다

주민에게 믿음 주는 영양군의회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주도로 서울의 미래과제 해결...5개 분야사업 공모

총 1억 8천만원 규모 미래 세대, 미래 서울의 과제를 해결하는 청년 프로젝트 지원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오는 23일부터 청년 주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며 '오늘의 실험, 미래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지원사업 5개 분야의 공모를 시작한다.

올해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프로젝트 공간 지원사업 '없애는 실험실' 청년 커뮤니티 실험 지원사업 '청년 팟' 청년 직업 실험 지원사업 '청년업' 입주공간 지원사업 '미달이 실험실' '글로벌 솔루션랩'의 5개 분야를 진행한다.

청년 직업실험 지원사업 '청년업'은 최대800만원, 프로젝트 공간 지원사업 '없애는 실험실'은 최대300만원, 청년 국제교류협력 지원사업 '글로벌 솔루션랩'은 최대500만원, 청년 커뮤니티 실험 지원사업 '청년팟'은 최대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허브는 2020년 청년 커뮤니티 200건 지원, 청년정책 개발을 위한 공론장 25회 진행 및 368명 참여, 청



년 직업실험 32건 지원, 입주공간 11건을 지원한 바 있다.

본 지원사업들은 청년허브 공식 홈페이지 및 서울청년포털에서 3월 23일부터 확인 가능하며 공고 이후 화

상회의 플랫폼 '줍'을 통해 청년허브 지원사업 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사업별 질의응답 등의 비대면 소통 프로그램도 진행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2013년 창

최광수/기자

노원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시설물 보수, 실태조사 용역까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속도 높인다

올해 36개소 과속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서울시 최다 42개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

서울 노원구가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지역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용역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통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먼저 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42개의 초등학교에 비해 지난해까지 총 14개소에 머물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올 상반기 내에 노닐 초등학교 등 총 28개소에 설치를 완료한다.

사고 위험이 높은 중계동 학원밀집 지역 등 8개소에도 추가 설치한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등 29개소에는 신호와 속도위반 단속을 겸하는 다기능 단속카메라를, 신호등이 미설치된 7개소에는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인다.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에도 힘을 기울인다.

어린이 보호구역 전수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관계자와 녹색 어머니 연합회 의견 청취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교통시설물 재정비 보수 보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2억원을 투입해 차선 재도색,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정비, 미끄럼 방지포장 등을 실시하고 LED표지판, 안전펜스 등 안전표지 시설물 신설, 교체, 철거를 실시했다.

올해도 구비 2억원을 해 투입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21개소에 대해 현장방문 등 수요조사를 거쳐 디자인 바닥포장, 노면표시, 안전표지판 50개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로 칼라블록 포장도 실시한다. 밝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운전자들이 해금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으로 주민들에게 호응이 커 작년 4개교에 이어 올해도 노닐초교, 청원초교, 연지초교 3개교를 대상으로 포장 작업을 실시한다.

한편 구는 지난달 26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어린이 통학로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가천대 산학협력단은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의 환경적, 시설적, 운영관리적, 제도단속적 측면에서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은 용역 결과에 대한 안전홍보를, 구는 제도 개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성인과는 달리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미성숙한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식개선은 물론 시스템적인 환경 구축도 중요하다"며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코로나19 극복 구로구, 마을버스 운수업체 지원협약 체결

관내 마을버스 운수회사 8개사 참여... 파견 운수종사자의 임금, 보험 등 세부 지원정책도 상호 합의

"우리 동네 마을버스, 우리가 지킨다" 구로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구로구는 "법정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한 마을버스 운수업체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에 관내 운수업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구로구 마을버스 비상수송대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마을버스 비상수송대책' 협약은 법정 감염병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내 마을버스 간 운수종사자 긴급파견, 구로구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12월에는 서울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건

제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구로구는 관내 마을버스 운수회사 8개사와 공동대응을 위한 '마을버스 비상수송대책' 협약을 이끌어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별도의 협약식 없이 서면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구로구는 파견 운수종사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파견 인력 제공 업체의 운행률 감소에 따른 재정문제를 시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운수회사 간에는 파견 직원에 대해 임금, 보험 등에서 본사 직원과 동일하게 대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좁고 가파른 골목길, 언덕 등이 많은 마을버스 노선 특성과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비상수송대책 시행 파견 직원에게 첫날 승객을 태우지 않고 운행하도록 하되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주민의 발'이 돼주는 마을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당산생활권 도시계획 청사진 그린다...실행계획 수립 착수

주민참여단 운영으로 소통·협력체계 구축...지역맞춤형 실행전략 수립 총력

영등포구는 지난 2018년 3월 수립된 '2030 서울생활권 계획'의 본격적 추진과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당산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착수에 돌입한다.

구는 지난 2019년 대립생활권 실행계획을 시작으로 2020년 신길생활권 실행계획도 연이어 수립하며 영등포 지역단위 생활권 실행방안을 추진력있게 진행해왔다.

구는 이번 계획 용역이 주민 생활 밀착형의 지역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전략적 실행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단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 소통과 의견 조율을 통해 주민 체감도 높은 전략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생활권별 전략사업을 도출하고 지역별 주요 정책, 현황을 바탕으로 핵심사업을 선정해 추진 절차, 운영체계, 재원조달계획 등 세부 추진 사항을 속도감있게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거점별 중심지 육성계획, 주민 의견수렴과 지역 환경을 고려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방안을 구상하고 SOC 시설 용도, 필요 규모 등 공공·민간자원과 연계한 공급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구는, 오는 3월 29일까지 '당산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실행계획 수립용역 시행을 희망하는 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 등록 후, 가격을 전자 투찰하고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작성해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12개월 동안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대상지인 당산생활권은 당산2동과 양평2동, 2개의 행정동을 포함하는



면적 4.55㎢ 규모의 부지로 인구 약 5만 7천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또한 한강·안양천·선유도공원이 위치해 생태자원 활용도가 높고 당산역, 선유도역 등 지하철 2·9호선과 서부간선도로가 지나는 등 지역 내 교통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곳으로 손꼽힌다.

반면, 주공혼재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요구되는 점, 저층 노후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점 등, 보완해야 할 과제들도 안고 있다.

구는 실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오는 4월 본격적인 착수에 돌입해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용역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우리 동네의 '미래지도'를 그려보는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미래상을 함께 그려가는 주민주체적 도시개발 추진 계획"이라며 "당산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가능한 지역밀착형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약수공가협동조합" 약수동 노후주택 환경개선에 앞장

중구는 약수동 노후주택 환경개선에 앞장선 "약수공가협동조합"이 2021년도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통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지정되면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다양한 경영지원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약수공가협동조합은 400여 세대의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약수동 동호터널 위 일대의 오랫동안 방치된 동네 빈집들을 리모델링 후 취약계층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2018년부터 해왔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골칫거리인 빈집을 활용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인근 주민들의 지역문제 인식과 해결의지로부터 시작했다.

슬럼화되어가는 동네를 지켜 빈집 주민들과 이웃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빈집 주인과 협의해 우선 5년간 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수선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월세로 보급하는 '약수보금자리' 임대주택 사업을 기획했다.

2019년에는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이 공동 출자금을 모아 공사비, 수선

비 등을 총담하고 주민의견을 나누는 사회적경제기관인 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됐다.

2018년 9월 '약수보금자리'1호를 개장한 후, 2020년까지 총 9개 주택을 리모델링하며 주민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롤모델로 주목받게 됐다.

사람이 살 수 있다고 믿기 어려웠던 방치된 집들이 깨끗하고 따뜻하게 단장되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이웃들의 보금자리로 탈바꿈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문제해결방법을 배우고 화합의 결실을 얻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약수공가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임대수의 일부로 장차금을 조성해 매년 어려운 지역 청소년에게 나누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는 지난 18일 협약식을 체결해 지속적인 사업모범 컨설팅은 물론, 서울시 '주민기술학교' 사업 등 공모사업을 신청해 필요한 전문 주민 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동조합 정준모 이사장은 "방치된 빈집이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을 주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되어 사용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지역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독거어르신 돌봄 사업이나 동네 인적자원을 활용

한 주민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이라고 말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구도심인 중구는 주거환경 개선비용이 낮아 낙후된 지역이 많은데 주민 주도하에 방치된 빈집을 재생해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터전도 마련하는 사업은 매우 뜻깊다"라며 "중구 전역의 공가를 활용해 사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코로나시대 서울여성의 재택노동은 안녕한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재택근무로 인해 개인시간 늘어 좋지만, 일과 생활의 분리는 어려워함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지 1년, 국내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전국에서 '멈춤'이 시작됐다.

입학식도 못한 아이들은 집에 머물고 직장인들도 근무지에 가기 어려워지며 재택근무가 하나의 대안이 됐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 A씨도 학교와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과 부대끼며 갑작스럽게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낸 지금, A씨의 일과 생활은 온전한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가사·돌봄 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성평등 생활사전 재택노동편' 결과를 발표했다.

재단은 3.8~3.16. 온라인 설문조사 '코로나 시대의 일과 삶, 성평등 생활사전 재택노동편'을 진행, 총 712명의 시민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재택근무 이유, 재택근무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재택생활 증가에 따른 긍정적·부정적인 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한 돌봄·가사노동 경험 등을 물었다.

여성이 재택근무를 하게 된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에서 일괄적으로 실사가 가장 많았고 업무 특성상 코로나 이전부터 실시 입산부, 고위험군, 자가격리 등 의무적 실시가 뒤를 이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느낀 장점으로 출퇴근 시간이 줄어 개인시간 증가 화상·웃차림 등 꾸밈노동 감소 코로나19 등 전염병 감염 위험 감소 순으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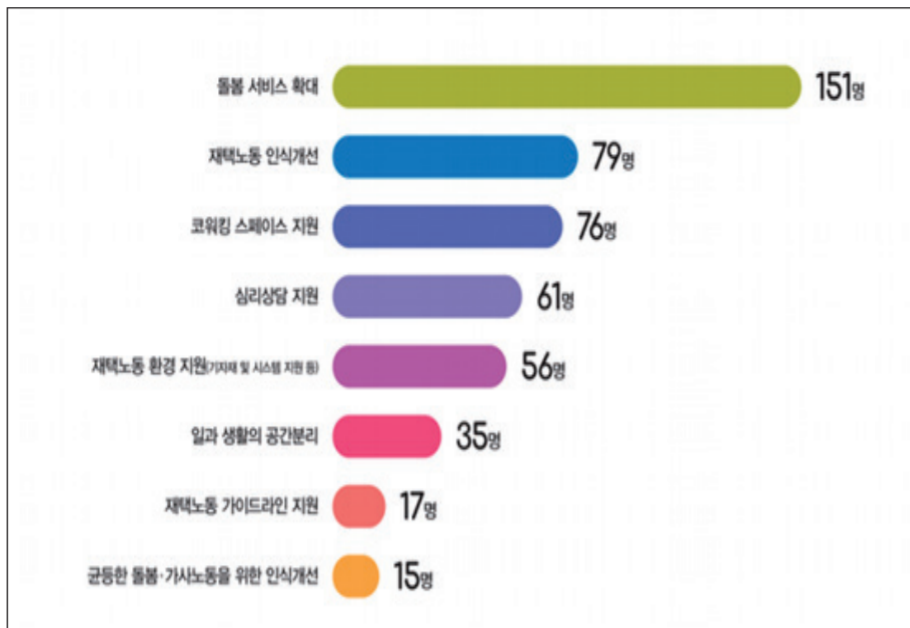
응답자 12.4%는 '유연한 시간 관리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해졌다'고 답했다.

재택근무의 단점을 묻는 질문에는 일과 생활공간 분리의 어려움이 가장 높았으며 업무시간과 휴게시간 관리의 어려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움 순으로 응답했다.

이밖에도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과 관련해 응답자 중 33.9%가 해고·실업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으며 31.5%가 임금감소 또는 고용형태가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가 변화했다고 응답한 75명 중 67명은 비정규직화됐으며 일부는 사직하거나 사직권유도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 이후 응답자 96.0%가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 동거가족과 대면시간이 늘어 친밀감 증가 가사에 관한 관심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긍정적인 점으로 꼽았다.

반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느낀 부정적인 점으로 가사 및 돌봄에 대한 부담 증가 외부 신체활동 축소로 인한 건강 약화 인간관계 단절로 인한 우울감 증가 층간소음, 좁은 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46.3%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돌봄·가사노동 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1~2시간 증가가 18.5%, 2~3시간 증가가 14.9%, 3시간 이상 증가는 16.3%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돌봄·가사노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으로 일과 돌봄·가사 병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돌봄·가사노동의 필요와 요구 증가 가족 또는 동거인 간의 갈등을 차례로 꼽았다.

응답자들은 코로나 시대 일터와 집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돌봄·가사 노동의 비중이 커지면서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돌봄 등 돌봄서비스 대상과 인력, 시간의 확대 재택노동도 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인식개선 요구 집에서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등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 건강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성평등 생활사전 재택노동

편'에 의견을 제안한 712명 중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40대, 20대가 그 뒤를 이었다.

노동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가 75.0%로 가장 많았고 프리랜서가 19.9%, 자영업자가 3.7%였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908년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노동운동을 계기로 시작된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2013년부터 매년 노동, 안전, 여성정책 등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 여성 정책을 위한 제언으로 활용해 왔다.

이번 코로나 시대 여성의 재택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중 75.0%가 임금노동자나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임금 감소 및 고용형태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재택노동이 업무와 돌봄·가사노동의 병행으로 과도한 노동이 되지 않기 위해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재택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및 코로나 블루에 대응하는 심리상담 지원 등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백미순 대표이사는 "이번 시민 조사를 통해 코로나 시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재택노동의 실태를 시민과 공유하고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평등한 직장문화 실천과 코로나로 인해 더욱 악화된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계양구,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확장 건립 추진

계양구는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증축사업이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계양구는 황어장터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4년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탑과 기념관을 건립했고 이듬해 5월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3.1만세운동 기념탑과 기념관은 우리나라의 자주독립 정신을 나타내는 계양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현재 기념관은 52.8㎡ 규모로 전

시설과 수장고를 갖추고 있으며 3.1만세운동 배경과 전개과정, 주도자 및 희생자의 인적사항, 수감 기록부, 만세운동의 파급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진열하고 있다.

일제에 항거해 목숨을 바친 선대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매년 어린이 독립운동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다.

매년 3,000여명 방문객이 기념관을 방문하고 있으나 기념관 내부가 좁고 교육장을 외부에 설치,

운영하고 있어 방문객들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계양구는 기념관을 553㎡, 3층 규모로 증축한다.

전시실, 체험실, 다목적 강당, 청소년 동아리실, 사무실 등을 확보하고자, 올해 4월말에 착공해 연내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과 현충시설을 마련해 역사교육과 함께 나라사랑의 마음을 높이고 주민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용산구, 2021년 Y밸리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서울 용산구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간 2021년 Y밸리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지역 경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다.

공모분야는 일반, 기획, 시설개선 3가지다.

일반공모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분과모임 형성과 마을의제 실천사업을 아우른다.

기획공모는 기존 일반공모 주제를 연계, 발전시킨 사업이다.

시설개선은 전자상가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전자상가 일대에서 일을 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생활기반자'와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있는 자, 상가 시설관리주체 등이며 지원한도는 건당 300~3000만원이다.

일반·기획공모의 경우 보조금의 10%, 시설개선공모의 경우 보조금의 30%를 자부담해야한다.

지난해에는 함께 일하는 용산 도시재생 스토리북, 용산 컴퓨터스토리 카페 활성화, 용산전자상가 출입구 시설개선, 선인상가 21동 옥상공원 공사 등 8개 사업이 주민 공모로 선정·집행됐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4월 2일부터 8일까지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찾아 신청서를 내면 된다.

우편,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관련 서식은 Y밸리 도시재생 공모사업 네이버 카페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접수기간까지 구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방문 전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구는 이후 면접심사 및 최종선정심

2021년 용산Y밸리 도시재생 주민(상인) 공모사업

공모기간: 2021. 3. 8(월) ~ 4. 8(월) | 접수기간: 2021. 4. 2(수) ~ 4. 8(월) 18시까지

신청방법: 직접접수: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우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0(여의도동) 용산구청 7층 도시계획과 | 이메일: hys@yvalley.com

신청분야: 일반 공모, 기획 공모, 시설개선 공모

지원대상: 주민협의체 분과모임, 생활기반자, 상가 시설관리주체 등

지원한도: 건당 300~3000만원

공모분야: 일반·기획공모, 시설개선공모

구분	일반공모	기획공모	시설개선공모
사업목적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민협의체 분과모임, 생활기반자, 상가 시설관리주체 등	기존 일반공모 주제를 연계, 발전시킨 사업	전자상가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개선사업
사업대상	전자상가 일대에서 일을 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생활기반자'와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있는 자	전자상가 일대에서 일을 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생활기반자'와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있는 자	전자상가 일대에서 일을 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생활기반자'와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있는 자
지원대상	전자상가 일대에서 일을 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생활기반자'와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있는 자	전자상가 일대에서 일을 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생활기반자'와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있는 자	전자상가 일대에서 일을 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생활기반자'와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있는 자
지원한도	건당 300~3000만원	건당 300~3000만원	건당 300~3000만원
신청기간	2021. 3. 8(월) ~ 4. 8(월)	2021. 3. 8(월) ~ 4. 8(월)	2021. 3. 8(월) ~ 4. 8(월)

의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정한다.

신청결과 발표, 협약 체결은 5월로 예정됐다. 성장형 용산구청장은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상인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을 시행한다"며 "주민·상

인의 역량을 키우고 낯은 시설도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밸리는 지난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됐다. 20개 마중물 사업에 내년까지 20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최만식/기자

인천시, 후손 물려줄 소중한 토양 체계적 관리 나선다

10년간 927억 투입, 오염된 토양 정화 등 다양한 토양보전시책 추진 계획

인천광역시시는 토양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은 현재 오염토양 정화가 진행되고 있는 캠프마켓, 문학산 송도역개발지역, 용현학익1블록을 비롯해 오염정화 문제로 소송중인 송도테마파크 부지 등 토양오염 현안지역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에 인천시는 토양환경 여건 및 토양오염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천 토양오염 특성을 파악해 그에 따른 전략별 추진과제 및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천지역은 수도권매립지, 비위생매립지, 위험물취급시설 등 잠재오염원이 11,039개소로 석유류 제조·저장·취급시설 1,379개소, 송유관 13개소 등 석유류관련시설과 15개의 산업단지가 다수 위치하고 있어 토양오염 관리방안이 절실하다.

또한, 2014~2019년에 걸친 토양오염 실태조사 자료가 따르면 총 539개소 중 71개소가 아연, 구리, 납, 니켈 등 중금속항목을 초과해 향

후 실태조사 범위 확대와 심도 조사 등 조사방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토양보전계획은 인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토양오염 문제 사전 예방 및 오염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와 실행방안을 포함했다.

첫째, 토양 전담관리 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토양지하수 정보를 연계 관리하고 토양오염원 및 정화지역 DB 구축 등 오염토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오염토양 조사 및 관리의 고도화로 매립지, 산업단지, 군부대, 지하수오염지역 등 취약지역 토양오염 조사 및 관리를 강화하고 토양오염 실태조사 내실화 및 오염토양 정화, 노후주유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매립지역 주변 토양배경 농도 조사, 사후 모니터링, 환경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양정보 콘텐츠 개발, 토양환경자문단 기능 확대 등 10년간 927억을 투입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다

양한 토양보전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용성 시 생활환경과장은 "앞으로 인천시는 환경부 승인과정을 거쳐 토양보전계획을 확정하고 연차별 토양보전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시민건강보호 및 녹색성장을 위한 토양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송파구, 송파쌤 온라인 마을교재 제작 공모

송파구가 4월 16일까지 '송파쌤 온라인 마을교재' 제작 공모전 참여자를 모집한다.

'송파쌤 온라인 마을교재'는 송파구의 환경, 산업, 문화재, 명소, 인물 등 다양한 지역 정보를 재미있게 알릴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교육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 맞추어 송파구만의 고유한 정보를 담아 손쉽게 공유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구는 올해 '송파혁신교육지구' 신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를 잘 알고 애착이 있는 주민과 마을강사들이 팀을 이루어 교재를 만들 수 있도록 공모전을 열게 된 것이다.

마을교재 제작 공모를 바탕으로 향후 학생, 관광객 등 일반 주민의 눈높이로 송파의 이모저모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제작계획서 서면심사를 통한 1차 선발 선발된 팀을 대상으로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술과 저작권 관련 교육, 팀별 네트워

킹 자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제작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어려움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완성된 교재에 대해서는 완성도와 창의성 등 평가를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경우 최대 3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재제작을 희망하는 팀은 4월 16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온라인 마을교재'는 송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색다른 시각을 제시할 것"

이라며 "송파를 잘 알고 애착이 있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이웃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 1월에 송파쌤 온라인포털을 오픈하고 미래교육센터, 인물도서관 등 다양한 교육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현재 100여 편 정도의 교육 콘텐츠도 탑재되어 비대면 교육을 지원 중이다.

이번에 제작되는 온라인 마을교재 또한 송파쌤 온라인포털에 업로드해 초·중교 마을교과 수업을 비롯해서 주민, 관광객 등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임실군, '안전속도 5030' 시행 박차

일반도로 50km, 이면도로 30km 속도 제한

임실군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4월 1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임실읍과 오수면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확충한다.

안전속도 5030은 정부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주요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교통안전 표지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차선 노면 표시 정비에 들어갔다.

군은 따르면 오는 4월까지 주거·상업 등 주요 도로에 대해 1억5천만 원을 투입해 168개 표지판을 신설

또는 교체하고 주요 거리에 대해 차선 도색 및 제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군민의 안전 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1년 국도비 3억원, 군비 13억원 등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교통안전 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통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억5천만 원을 투입, 교통약자 보호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운영 및 합동단속을 펼치는 등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 심 민 군수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시설 정비를 통해 교통안전사고 줄이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여주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여주시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신고요건에 맞게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방문이 없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등이다.

신고운영시간은 연중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08:00~20:00이다. 신고요건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동일한 장소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72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소화전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8만원, 나머지 3곳은 4만원이며 신고포상금은 없다.

주민신고제가 운영됨에 따라 일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위반되어 통보되는 신고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일부 단속지역에는 "주민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치"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여주시에서 계절별 피

해예방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여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 근절 뿐만아니라 시민 모두가 주차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욱/기자



봄철 건조기 논밭두렁 태우기 삼가세요

전라남도는 봄철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4월 18일까지 한 달간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예방 위주의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총 53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13.9ha에 이른다.

이는 5년간 발생 건수의 32%, 발생면적의 41.6%를 차지하는 규모로 이 기간 산불이 집중해 발생하고 있다.

논밭두렁이나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피해 야간에 소각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1.5배로 가중 처벌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도는 올해 '소각산불 제로화'의 원년 달성을 위해 그동안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홍보활동을 펼치고 농업 경영활동 후 남은 부산물 66톤을 파쇄 처리했으며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23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기상청이 올 3~4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보해 대형산불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영만/기자



군산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 합동단속 성과 빛나

군산시가 불법 중개행위 특별합동단속 중 불법중개행위 신고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2주 간에 걸쳐 더샵2차 아파트 분양에 따른 현장 불법 중개행위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경찰서 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 군산지회 등과 합동으로 단속한 첫 사례로 단속기간 중 이동 불법중개행위 신고하는 등 의심자를 단속했다.

지난 17일 오후 2시 경 분양권 계약체결하고 나오는 방문객에게 접근해 호객행위를 하는 정황을 포착, 뒷다방으로 의심되는 자를 더샵2차 견본주택 주변에서 경찰과 공조로 의심자를 단속해 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다.

시는 앞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의 연결관계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의해 최고단계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요즘 LH 관련 부동산 투기관련해 전국적으로 여수선한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시는 특별단속이 종료된 것이 아닌만큼 앞으로 있을 은파호수공원아이파크 분양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 외지인 뺑다방 등이 군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집중 감시할 뿐만아니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가격 담합과 분양권 불법 전매 및 인터넷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김현태/기자



괴산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 실시

충북 괴산군은 지난 22일 괴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은 최근 공중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예방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괴산군·괴산경찰서 합동점검반 6명은 관광지,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공중화장실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해 환풍구, 쓰레기통, 천장과 벽체 구멍 등 의심 위치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신미선 주민복지과장은 "최근 들어 계속되는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이슈로 인해 군민들의 불안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괴산이 여성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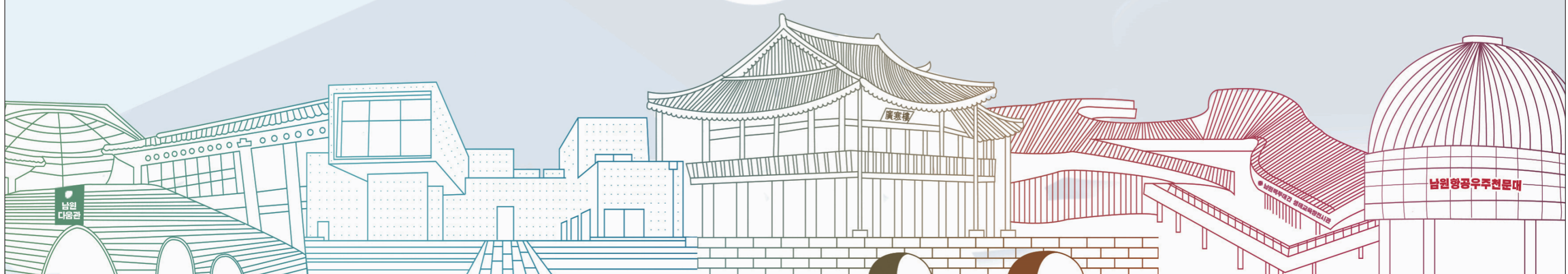
한편 괴산군은 관내 기업체, 음식점, 숙박업소,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탐지장비에 대한 대여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장비 대여는 각 읍·면사무소 및 괴산군청 주민복지과로 방문해 대여를 신청하면 된다.

최만식/기자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진로지원센터, '2021년 진로지원단 간담회' 개최

청소년진로직업체험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킹

광명시청소년재단 청소년진로지원센터는 22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진로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유학년제 연계 진로직업체험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올해 추진하는 사업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및 자유학년제 협력 구축 일환으로 센터에서 발굴한 관내 진로체험처 및 직업인 멘토, 중·고등학교 진로진학교사가 참여했으며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 동기 향상과 탐색, 미래설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해 청소년

들이 안전하게 진로직업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논의했으며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진로지원단 여러분들의 다양한 소통과 네트워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광명시 관내 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을 것"을 당부했다.

원종근기자



시흥시-서울대 시흥영재교육원, 2021학년도 입학식 개최

시흥시와 서울대학교의 교육협력 사업인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 시흥영재교육원'이 지난 20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2021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시흥영재교육원은 지난 1월 학교장, 시흥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장의 추천 및 서울대 교수진의 심층면접을 거쳐 사사 및 R&E과정 총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학생들은 이번 입학식을 시작으로 작년 개관한 서울대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탐구실 및 멀티미디어실로 구성된 시흥영재교육원 전용공간에서 4월부터 12월까지 분과별 교육과정을 수강하게 된다.

특히 중학교 2학년에 중단되는 시흥교육지원청의 교육과 연계한 지속적인 영재교육의 필요에 따라 시흥시와 서울대가 협력해 2012년 시작한 시흥영재교육원의 중3학년 대상 '사사과정'은 수학·정보, 과학, 융합분과별 서울대 교수가 직접 강의하는 과정으로 과학입문교육, 심화탐구 및 실험, 관악캠퍼스 투어 등으로 구성된다.

고1~2학년 대상 'R&E과정'은 지도교수, 석박사급 연구원과 학생 5명이 한 팀이 되어 '그래프 이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시흥시 고교 보안팀 배치하기' 등의 시흥시의 특성을 반영한 주제를 선정해 연구를 진행하고 중간 및 최종발표회를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이번 입학식에서 전상학 시흥영재교육원장은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과정을 준비했다"며 "시흥 학생들이 시흥영재교육원에서 꿈과 잠재력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하고 함께 서울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서울대와의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이어 오는 4월 서울대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은계지구 내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북부교육장을 개관해 시흥시민 누구나 서울대 교육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권역별로 분산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정부기자



수원시 주거복지 서비스 한눈에 볼 수 있는 웹페이지 개설

주거급여,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등 수원시 모든 주거복지 서비스 소개

수원시 홈페이지에 수원시의 주거복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페이지가 개설됐다.

주거복지 정보는 수원시 홈페이지 상단 '분야별 정보'에서 도시→주거복지에 접속해 볼 수 있다.

주거 급여 다자녀·정자동 수원휴먼주택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황 지원 긴급지원주택 긴급 지원 마을사랑방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공공하수도 사용자 지원 사회복지기금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장애인 이사비 지원 가사서비스 YES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저소득층 클린케어 사업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등 수원시의 모든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주거복지 사업 설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시기,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신청 절차 등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주거복지포털 마이홈, 경기주거복지포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정부, 경기도, 수원시 협업기관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볼 수 있는 홈페이지도 링크했다.

기우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수원시 주거복지사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전용 페

이지를 개설했다"며 "웹페이지가 주거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주거 위기 가구도 증가하는 추세"며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주거복지

- 주거급여(청년주거급여) 지원
-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지원
- 정자동 수원휴먼주택 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황 지원
-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지원
- 긴급지원(임대주택 지원)
- 기타
- 수원시 주거복지지원센터
- 마이홈포털
- 경기주거복지포털

여주시 '대왕님표 여주쌀' 첫 모내기

여주시는 지난 3월 22일 여주시 우만동 소재 흥기완 농가에서 2021년 첫 모내기를 실시했다.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주관으로 진행된 2021년 첫 모내기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아래 여주시장, 박시선 여주시의회 의장, 이병길 여주농협조합장, 박일영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날 첫 모내기에 사용된 품종은 극조생종 올벼로 식부면적 2,500㎡이며 6월 중 약 1,200kg의 벼를 수확할 예정이다.

모내기 시연을 마친 이항진 여주시장은 "고품질 대왕님표 여주쌀 생산의 명성을 잇는 첫 모내기를 함

께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방역수칙 준수와 선제검사를 통해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

대왕님표 여주쌀 생산에 힘써주시는 농민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주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시는 2021년부터 여주시 전체 벼 재배 면적 GAP인증사업을 추진중으로 유색벼를 활용한 논그림 홍보 등을 추진하며 타 지역과 차별화된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성용기자



오산시 세무조사 경기도 평가 우수상 수상

오산시가 '2020년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경기도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4일 전했다.

이번 경기도 실적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세무조사 실적으로 세무조사 추징률, 전년 대비 추징세액 증가율 등 6개 추진 실적 평가항목을 토대로 실시했다.

오산시는 정기세무조사와 더불어 과점주주 일제조사, 개인 건축물 취득세 누락조사, 주민세 특별조사, 시설물 조사 등의 기획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특히 지난해 경기도 주관 세무조사 연찬회에서 누락 세원 발굴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지방재정혁신 세입증대분야에서 새로운 세무조사기법 적용으로 행안부

장관상 수상의 가점이 더해져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세무조사팀에서는 서면 위주의 조사 실시 및 조사 시기 조정, 적극적인 세무조사 유예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으며 탈루·숨은 세원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운영했다.

한편 이강길 세정과장은 "올해 세무조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조사 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판단·적용할 것이며 아울러 농치기 쉬운 지방세 신고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오산시와 기업이 함께 짐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남주기자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이끌어왔습니다
내일의 에너지를 주도해가겠습니다**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

육상과 해상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도심 속 조물림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유기물의 광합작용을 이용한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추진)

비화산지대에서 24시간 운전가능한
지열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주

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등 특색 넘치는 전통시장 만든다...11곳 대상

신규 사업 '청년 푸드창업 허브' 전통시장 내 외식분야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경기도가 올해 전통시장을 맛과 즐거움이 넘치는 외식업 창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청년 푸드창업 허브' 등 '2021년도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에 참여할 시장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푸드창업 허브, 상생발전형 경기 공유마켓 2개 분야에 대한 모집을 진행한다.

먼저 '청년 푸드창업 허브'는 청년·중장년 세대의 외식분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인 '청년식탁'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민선 7기 경

기도가 올해부터 처음 도입해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인접한 상권으로 이중 1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전통시장에는 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설 구축이 완료된 뒤에는 외식업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배달식 시장 확대 등 최신 외식업 트렌드에 걸맞은 창업공간으로 만들 예정이

며 열린식탁·열린오피스·지역주민센터 등의 개방적 공간운영으로 지역과의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상생발전형 경기 공유마켓'은 시장 1곳당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통시장 유휴 공간 내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누구나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공유상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10곳을 신규사업 대상으로 선정, 홍보·마케팅, 문화공연, 판매대 및 부스 설치 등을 지원하고 공유마켓 사업단과 매니저를 통해 새로운 품목들과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

통시장 및 상점가 등은 오는 4월 16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서류 및 현장·발표 평가 등을 진행해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소비 패턴에 맞춰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추진, 골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청년 푸드창업 허브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최근수기자

찾아가는 정신건강버스 '토닥토닥 버스' 운영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오는 4월 1일 5월 6일 일산서구청 앞에서 찾아가는 정신건강버스인 '토닥토닥 버스'를 운영한다.

'토닥토닥 버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뿐 아니라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과 같은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신건강 위험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1:1 상담으로 진행된다.

'토닥토닥 버스'의 정신과 전문의 상담은 진료기록이 남지 않고 상담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의 상담 결과 지속적인 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전문의원'과의 상담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정석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 제약, 대인관계 단절,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힘들지만 치료 없이 혼자 견뎌내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하며 "주변에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토닥토닥버스 전문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일산병원과 함께 하는 토닥토닥버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신청 접수 시작!

4/1(목) 14:00-16:00
5/6(목) 14:00-16:00
● 일산서구청 영구

상담할까요? 편하게 상담을 받아주세요!

- ✓ 무료
- ✓ 비밀보장
- ✓ 약물처방 없음
- ✓ 진료기록 남지 않음

● 토닥토닥 버스를 운영하며, 차량에서 자택까지

안성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하면 온실가스가 줄어듭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참여 안내

안성시에서는 4월 2일까지 모집하는 2021년 상반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 사업에 안성시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을 인증하는 농식품 국가 인증제이다.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와 작물보호제, 농자재, 에너지의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물 관리기술 등을 말한다.

대상품목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받은 식량작물·과수·채소·특용작물 등 61개이다.

신청 농가는 인증요건 사전검토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며 인증 컨설팅·심사·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최종 심의를 거쳐 8월 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조정주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확대되는 기후변화에 경각심을 갖고 농업분야 피해 예방을 위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에 적극 참여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앞장서 달라"며 많은 농업인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최근수기자

저탄소 (LOW CARBON) 농림축산식품부

김상돈 의왕시장, '2021 대한민국 글로벌클라운대상' 수상

시민과의 소통·공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김상돈 의왕시장이 23일 '2021 대한민국 글로벌클라운대상' 지방자치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2021 대한민국 글로벌클라운대상 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회학회, 국회출입기자협의회, 여정포럼, 동국사회가 후원하는 '글로벌클라운대상'은 정치, 국제, 지방자치, 경제, 교육, 의료, 사회, 문화 등 8개 부문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을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김상돈 시장은 민선7기 2년간 고천·초평·월암·정계2지구와 농어촌공사 이전지 개발 등 다양한 신도시 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새로운 의왕, 변화하는 의왕'을 성공적으로 열어

가고 있다.

또한, 시민과의 공감행정을 위한 '현장행정'의 날' 운영, 전국 최초의 경로당 전담 주차의제 운영, 청년층의 주거와 일자리를 위한 청년주택 건립, 의왕시 최초의 산업단지 준공,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어린이 도서관 내 실내놀이터 설치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이번 글로벌클라운대상에 선정됐다.

김상돈 시장은 "이번 수상은 16만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가 함께 이뤄낸 소중한 결과"며 "앞으로도 도시경쟁력을 높여 시민이 행복한 의왕시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원종균/기자



포천시, 앞서가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방역관리사 자격증 취득과정' 개강

포천시는 지난 22일 '방역관리사 자격증 취득 양성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방역관리사 자격증 취득 양성과정은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요소인 방역과 관련된 구인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재취업 희망 구직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취업 및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개발원에 위탁운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방역관리 이론교육 및 실

습으로 진행되며 방역관리사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운영한다.

최근 코로나 19, AI 조류독감, ASF 돼지열병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전문 방역관리사의 수요 급증이 늘어나고 있다.

시는 이번 교육과정을 마치면 교육생 모두 지역 내 방역관련 수요업체에 취업을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선진 옥외광고문화를 선도하는 품격있는 문화도시, 구미

구미시, 옥외광고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구미시는 올해 10월 개최되는 제 102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1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시 거리미관 개선을 통한 대대적인 손질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민선 7기 출범이후 장세용 구미시장은 '도시재생전문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그동안 꾸준히 도시재생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선진 옥외광고문화를 선도하는 품격있는 문화도시, 아름다운 거리미관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미시는 노후화된 상가 골목의 전체적인 미관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뤄냈다.

그동안 2009년 선주원남동, 2012년 공단동, 원평2동, 2014년 원평1동, 2017년 형곡1동, 2018년 비산동, 선산읍, 상모사곡동, 2020년 신평2동 일대를 완료했으며 올해 2021년에도 공모사업을 통한 선산읍과 임운동 일원의 간판개선 사업을 준비해 구미시 거리미관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구미시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구미시는 시내중심지 및 대로변 등 도시이미지를 해치는 무주광고물 및 노후·훼손된 광고물을 2020년 250여개, 2021년 150여개 등 총 400여개를 철거하고 입면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제 102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국체전의 경기장으로 사용될 송정동 시민운동장 일원의 노후간판 철거는 그간 도시 이미지 저해의 주범이 되었던 것으로서 이번 철거 사업을 통해 구미시를 찾는 선수단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경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는 경북도 최초로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새로빛방송국~수출탑 양방향 불법광고물 ZERO 거리로 지정하고 시범운영해 2020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간 내 계층된 불법광고물은 내용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철거하며 3회 이상 적발 시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3월 현재 해당 구간은 구미시 불법광고물 청정구역이라고 불려도 손색없을 만큼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됐다.

구미시는 향후 불법광고물 ZERO

거리를 추가 조성해 구미시 전역의 거리 미관이 청정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합심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미시는 2019년 8월부터 불법광고물의 차단효과를 특별히 보여주고 있는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일명 전화 폭탄을 도입하고 2020년부터 200개의 발신 전용 번호를 마련해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주말단속반 등과 같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깨끗한 거리미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1월~3월 대비 2021년 1월~3월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의 발신량은 4만5천661건에서 2만1천662건으로 약 53% 감소해 사업의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구미시는 이와 같은 불법광고물 차단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시에서는 옥외광고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선진광고 문화 정착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구미시에 등록된 166개 업체 및 미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등록사항 미준수 업체와 기존 등록 사업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치해 옥외광고사업자의 자질 함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

구미시의 이 같은 노력은 구미시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는 낙남루 경관조성사업, 문화예술회관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이

최만식기자

경주시, 2021년 '세계 물의 날' 기념 우수 기관상 수상

'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상수도 우수율 제고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해

경주시는 올해 '세계 물의 날'의 맞아 경상북도 물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고 23일 밝혔다.

경북도는 매년 세계 물의 날에 물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기여한 기관에 표창을 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상수도 우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수도 현대화사업' 협약을 맺고 오는 2024년까지 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진행한다.

시가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5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 우수율이 현재 58%에서 85%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부터 2년에 걸쳐 5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수도물 공급과정의 체계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김호진 부시장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도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물의 날 주제인 '물의 가치 미래의 가

치'에 맞춰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울산시, "2021년 일반산업단지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환경개선 등 3개 분야, 8개 사업으로 구성

울산시는 산업단지 내 시설 및 입주기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근로자가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일반산업단지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薪水, 꿈터 조성'을 비전으로 산단시설 안전점검 및 환경 개선 입주기업 안전관리 강화 산단안전 대응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 제공 등 3개 분야, 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 참여는 총 13개 부서 및 기관이며 사업대상은 매곡 일반산업단지 등 총 14개 산단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환경개선'과 관련, 옹벽

구조물, 절토사면에 대한 합동점검 및 도로시설물 정기·정밀 안전점검, 녹지시설 조성 및 재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입주기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압가스 저장·사용업체 점검, 인명사고 위험현장 순회점검, 위험물 저장·취급소 검사,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기술 컨설팅, 입주업체 안전역량 강화사업, 안전의식 교육 등이 실시된다.

'산단 안전 대응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 제공' 분야에서는 자연재난 대응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13개 부서·기관의 산단 안전실무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산단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과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와 시 지원 사업 추천 등의 인센티

브 제공이 이뤄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관 부서와 기관 간, 일반산업단지 안전관리 협력 추진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 예방과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기억, 꽃으로 피어나다 '기억 꽃 필 무렵'

김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김천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 '기억 꽃 필 무렵'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 어르신 대상을 모집한다.

'기억 꽃 필 무렵'은 4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주 1회 총 8회 과정으로 매주 금요일에 치매안심센터 꽃내음실에서 식물 재배 및 원예프로그램과 인지학습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예프로그램인 고무신 꽃꽂이 꽃식초 만들기 등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고 뇌를 활성화하며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한 전인적 치료효과를 제공하고 인지학습수업인 예방특목 학습지의 위치기억하기 숫자연결하기 단어연상하기 등을 통해 뇌 영역을 골고루 자극하게 만들어 두 뇌를 튼튼하게 함으로써 긍정적 경험과 자아 존중감 및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치매 이후 돌봄 강화보다 치매 예방을 통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키는 것이 사회·경제적인 소모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강화와 치매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어 사회성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김천시치매안심센터
꽃으로 하는
치매예방
:: 기억 꽃 필 무렵 ::
전화번호 : 054-421-2886
운영 기간 2021.04.02. ~ 05.21. 8회기 매주 금요일 14:00 ~ 15:30
운영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어르신
운영 내용 식물과 꽃을 만지는 원예활동을 통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

의성 대곡사 범종루 보물 지정

조선 후기 목조누각건축물의 백미

의성군은 문화재청이 지난 3월 18일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의에서 의성군 다인면 대곡사에 있는 범종루를 보물 제2121호로 승격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물 지정승격으로 의성 대곡사는 보물 2건, 유형문화재 2건, 문화재자료 3건을 간직한 유서 깊은 전라고찰로 재조명됐으며 명칭도 범종각에서 범종루로 변경되어 건물의 용도와 품격에 걸 맞는 이름을 되찾았다는 것에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의성 대곡사 범종루는 '대곡사 창건 전후 사적기'의 기록을 통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병화로 전소되어 17세기 중·후반인 1644년에서 1683년 사이에 중창됐다고 전해진다.

범종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2층의 누각 건물로 현존하는 누각 건축 중 17세기 전반의 것은 대부분 3칸 평면을 가지고 있고 이후 누각 평면이 3칸에서 5칸, 7칸으로 점차 확장되어 가는 경향을 살펴볼 때 범종루는 기존에 남아 있는 누각 건축 중



에서도 이른 시기인 17세기 전반의 특징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존하는 기록을 바탕으로 창건과 중창의 근거 또한 확인할 수 있으며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특히 의성지역의 불교사찰이 부흥하기 시작한 17세기의 양식적 변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누각 건축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작년 고운사 연수전의 보물지정과 더불어 올해 대곡사 범종루의 보물지정은 의성군의 경사스러운 일로 조선시대 후기 목조 누각 건축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건물이 보물로 지정되어 대곡사의 사격을 더욱 높이는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력해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부산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14억원 세수 확보

온실가스는 줄이고 세입은 늘리고... 두 마리 토끼 잡았다

부산시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총 30억원 상당의 수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할당받은 136만 6천 톤 대비 15만 4천 톤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지자체에 계획기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부산시를 포함 전국 685개 업체에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고 있다.

부산시는 매립장·소각장·하수처리장·정수장·집단지너지공급시설 등 28곳에 폐열을 이용하거나 연료

를 LNG에서 스팀으로 전환하고 태양광발전 시설과 음식물 소화가스 발전시설,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정부의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 중에 7만2천t을 문현금융단지 내 위치한 한국거래소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통해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3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평균 가격은 1t당 1만9천 원 수준으로 14억원의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으로 2020년에도 잉여배출권 6만5천t을 판매해 13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

나머지 16억원에 상당하는 8만2천

t은 2021년도 배출권으로 이월해 배출권 운영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잉여배출권을 보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산환경공단 등 배출권거래해당 사업장과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창원시, '소상공인 성공시대' 지원사업 시행한다

창원시는 23일부터 창원시 '소상공인 성공시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소상공인 컨설팅과 협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 추진된다.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업으로 온라인마케팅, 점포운영, 세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소상공인의 수요에 맞춰 2~4회로 진행되는 1:1 맞춤 컨설팅 사업이다.

'소상공인 협업화지원'사업은 3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모여 협업체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시설이나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동이용시설 구축에는 3천만원, 공동운영시스템구축에는 2천만원,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활용에는 1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며 협업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컨설팅도 최대 4회까지 지원한다.

경제살리기와 김부식 과장은 "최근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소비심리 위축,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경남형 한 달 살이 '남몰래 합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합천군은 지난해 경상남도 공모 사업으로 추진된 경남형 한 달 살이 "드라마틱 합천에서 한 달 살기" 큰 인기몰이로 합천의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는 마케팅 효과를 거두었고 올해는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합천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몰래 합천 살아보기' 주제로 3월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경남지역 외 19세 이상 거주자로 1명~2명을 팀으로 구성해 소규모 개별 자유여행으로 진행되며 체류기간은 2박~5박 이하로 숙박비 및 입장료·체류비를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합천군 여행에 대한 의지가 크고 개인 SNS를 통해 지역관광자원 홍보 가능한 자료 신청 및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관광협의회로 문의하면 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코로나시대 여행자의 눈높이에 맞춘 컨셉으로 지역 내 장기 체류형 여행객을 증가시키고 여행자들을 통해 SNS로 합천을 경험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관광객 유입으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광용기자

산청군 602억원 규모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마쳐

2022년 추진 47개 사업... 전년 보다 56억원 증액

산청군은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 사업으로 모두 47개 사업, 602억원을 경남도에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촌 구조개선을 통해 농업과 농촌발전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군은 농업의 디지털화 등 시대의 흐름에 맞게 농업구조를 바꾸는 한편 산림자원을 활용한 임업 등을 확대하기 위해 47개 사업을 발굴·신청했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분과 17개 사업에 238억원, 유동·원예분과 14개 사업에 43억원, 축산분과 2개 사업 27억원, 임업·산촌분과 11개 사업 83억원, 농업생산분과 3개 사업 211억원 등 모두 602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예산신청액 대비 56

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산청군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산청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안 및 2021년도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농정 방향의 적합성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신청한 사업들은 경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2022년도 사업비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농림축산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산청군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남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비 등 예산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남해군 '국립한국섬진흥원' 유치 총력전

동·서·남해안의 중심 남해군 한국섬진흥원 유치 계획 수립



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간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령을 통해 전국 섬 정책 종합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섬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4월까지 공모를 통해 설립지역을 선정·발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섬 진흥원'은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을 하는 기관으로 국가 균형발전 가치를 실현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남해군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지자체'로 청정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있어 그 어느 곳보다 한국 섬 진흥원의 설립 취지와 부합한다는 평가다.

특히 서해안과 동해안의 중심인 남해안, 그 남해안 중에서도 중심지가 남해군이라는 점도 큰 매력이다.

지정학적 조건이나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남해군의 입지 여건이 뛰어나기 뿐만 아니라, 살기좋은 섬 만들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군의 역량과 한

국 섬 진흥원의 전문성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군은 한국섬진흥원 유치와 동시에 살기좋은 섬 만들기를 위한 표준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해군은 살기좋은 섬 만들기 표준 모델로 청년이 일하고 싶은 '돌아오는 섬' 주민의 일상이 섬의 역사가 되는 '살기좋은 섬' 생태자원을 활용한 '예술의 섬'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남해군은 지난 3월4일 경상남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한국섬진흥원 설립지역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4월경 최종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청정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보물섬 남해군은 그 자체로 섬 진흥원의 설립 요건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가치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며 "대한민국 전역을 관찰할 수 있는 동서남해안의 중심인 남해군에서 대한민국 섬 발전 정책을 일구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경북 농촌 체험 휴양마을

美에 반하다

남원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 착공!

익산시, 안전 근무환경 조성 '안심 비상벨' 운영

경찰서 112 상황실 시스템 실시간 연계



남원시는 지난 23일 노암산업단지에서 남원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이하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지상 3층 연면적 1만564.42㎡(3,195평)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 268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국내 유일 화장품 전문 인프라를 갖춘 지식산업센터로서, 도 내·외 화장품 기업들로부터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즈니스센터는 화장품기업 전문 입주공간으로써 총 36개실의 임대 공간으로 공장형, 사무실형, 스타트업 공간으로 구성된다.

공장형의 경우 기본적인 유틸리티 장비가 제공되며 특히 1층 공장형 4개실은 CGMP가 가능한 하드웨어를 갖추어 입주기업의 생산역량을 혁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3층 기업지원공간에는 교육실, 샘플제작지원실, 촬영실 등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 화장품기업을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화장품산업육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그동안 집중투자한 산업 인프라와 기술이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성장시키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호남과 영남권의 화장품 기업성장 거점으로서 남원이 부각 될 것이다."라고 기대와 포부를 내비쳤다.

비즈니스센터는 공장형 유틸리티 기본제공, 공동물류 하역장 설치, 주차공간 104대, 산업폐수처리집수정 설치, 위험물저장소 설치, 화물용 전용승강기 설치, 식당과 매점 등 근린편의시설 설치 등 화장품기업 최적화 시설을 갖추고 오는 10월 입주자모집을 개시하여 2022년 상반기 기업입주를 목표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이남출/기자

익산시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 비상벨'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22일 본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32개소에 경찰서와 직접 연결되는 '안심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안심 비상벨'은 버튼을 누를 시 경찰서 112 상황실 시스템에 실시간 상황이 등록·연계돼 가까운 지구대가 즉시 출동해 공무원과 민원인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폭언·폭

행 등 반복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민원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은 "그동안 전 직원 행정 전화 녹취 운영,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수립 등 악성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비상벨 설치를 통해 민원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진안군민 모두 100% 용담호 물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

22일 진안군 물의 날 행사 및 주민권기대회 열려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실천을 다짐하고 용담호 광역상수도 공급률을 확대하기 위한 행사가 22일 용담댐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진안군과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세계 물의 날 기념식과 진안군 사회단체 일동이 주관한 주민권기대회 등이 동시에 열렸다.

물의 날 행사에는 진안군주민협의회 회원 및 사회단체 일동, 전춘성 진안군수 및 진안군의회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협의회장은 “용담호 자원을 미래까지도 활용키 위해서는 깨끗이 지켜가면서 상수원관리에 따른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찾자”고 말했다. 이에 전춘성 진안군수는 “물을 무한한 자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물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용담댐 담수 이후 20여년 동안 진안군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전국의 생명수인 용담호 수질이 꾸준히 개선됐으며 진안군의 희생이 이제는 광역상수원 공급 확대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주민자치협의회, 진안군애환운동본부 등 7개 사회단체는 용담호에 대한 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진안군 내 광역상수도 100% 공급과 용담댐 상류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 인상이 담긴 건의문 낭독과 주민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 사회단체는 추후 주민 서명부와 함께 건의문을 환경부, 수자원공사,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우대만 진안군애환운동본부장은 “우리 사회단체들이 앞장 서 용담호 물에 대한 정당한 진안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군민 100%가 용담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용담호 수질자율관리 실천 결의를 고취하고 지속적인 용담호 수질자율관리 실천의지를 널리 전파하고자 추진됐다.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주민협의회는 전국의 생명수인 용담호를 2005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없이도 전라북도-진안군-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자율적이며 민간주도형식의 수질관리를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용담댐은 호소 및 5개 유입 하천 수질이 담수전에 비해 전반적인 개선 상태를 보여 '매우 좋음' 1급수로 평가받아 전국 상수원댐 중 우수한 수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아진 2부 행사에서는 관내 사회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열린 진안군 광역상수도 확대 촉구 건의문 낭독식이 열렸다.

건의문에는 진안군 모든 군민이 용담호의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광역 상수도 100% 공급과 용담댐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인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안군행정동우회, 바르게살기운동진안군협의회, 자연보호진안군협의회, 용담호수질개선주민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진안군지회, 진안군

행사 마지막에는 전 참석자들이 섬바위 어둔리 하천일대 정화활동을 펼치며 용담호 수질 보전활동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진안군은 2011년 건설된 용담댐으로 36.24㎢ 면적이 물에 잠겨 12,616명의 실랑민이 발생했으며 지금도 진안군 전체 면적 789㎢ 중 112㎢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전체 군민의 49%정도만 용담호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다.

유정철/이희철/기자

장수군, 지역문화를 계승해 전통문화의 부흥을 꿈꾸다

장수군은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형성된 전통문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통문화 전승 보존사업을 진행한다.

23일 장수군에 따르면 군의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고 보존하기 위해 총 2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장수군 향토문화 연구조사, 전복농과 전승학교 지원사업, 장수군 깃절놀이 복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장수군에 예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무형유산인 장수 깃절놀이의 복원·전승 사업과 장수농악의 고유성을 전승하는 1시간 1교 전복농악 전승학교 사업을 통해 우리 군만이 가진 무형유산의 우수성을 알리

고 지역화합을 위한 문화축제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선 전기 건축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장수향교를 중심으로 한 장수향교 제례봉행, 유립전통문화 시연, 향교 서원문화재 활용사업과 관내 지역유교문화물 이어가는 서원 제례봉행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장수군수는 “장수군만의 고유 향토문화 전승·보존활동과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추진해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장수군민의 문화생활 발전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 밝혔다.

곽승오/기자



부안군, 아이스팩 재사용 동참 집중 홍보

부안군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아이스팩 재사용에 발 벗고 나섰다.

부안군은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해 썩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해 지난주 각종동투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 40여개를 설치했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간단한 선별작업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회, 자영업자, 영농조합법인 등에 무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아이스팩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읍면사무소에도 수거함을 설치해 중형사이즈 아이스팩 5개당 종량제봉투 20리터 1장을 지급해 수거율을 높일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그동안 처치곤란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인 아이스팩 재사용을 통해 자원순환 및 자연환경 보전에 앞장서겠다”며 아이스팩 수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김제시, 시민과 함께 “안전한 문화관광도시” 도약 꿈꾼다

김제시는 새만금 시대,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비전으로 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과 함께 안전한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대규모·단체관광에서 소규모·비대면·개별관광으로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빠르게 대응해 특색있고 안전한 비대면 관광지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20년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망해사를 선정했고 2021년에는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에 아리랑문학마을을 선정과 함께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해 김제시를 비롯해 전북도내 6개 시군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안심

김제기를 지정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등과 연계해 소규모·비대면 관광지 캠퍼 투어 추진 김제를 방문하는 가족 단위 여행객 유치를 위한 숙박비 지원사업, 미래 잠재관광객인 청소년과 한국철도공사 전 북분부와 공동으로 추진해 관광도시로서 김제시의 매력 을 선보일 예정이다.

모악산 자락에 자리한 1,400년 고찰 금산사는 2020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중 한 곳으로 CNN이 선정 했는데, 현재 고즈넉한 산사체험을 원 한다면 템플 스테이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36호인 금산교화와, 국가등록문화재 제185호인 증산법 종교분부, 그리고 영화 '보리울의 여름' 촬영지로 유명한 수류성당이 2021년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예고되면서 김제시는 모악산 지역의 4대 종교가 모두 문화재로 지정되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 손꼽힌다.

여기에 올해부터 추진중에 있는 모악산권역 관광자원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모악산 숲속 모험 놀이터를 인공폭포, 바닷분수와 연계해 가족형 놀이시설과 스카이웨이 등을 설치해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수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금평저수지에 스카이워크 등을 설치해 색다른 체험공

간을 제공해 관광매력도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내권의 핵심지역인 동헌·내아·향교와 전통시장, 청년몰, 성산공원, 문화예술회관을 도심관광 활성화의 핵심축으로 판단하고 성산타워 전망대 통신문자국이 철거와 함께 성산타워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에 청년몰 '아리랑'을 시티투어와 연계하는 등 김제 도심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농경문화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벽골제 관광지는 올해부터 체계적인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김제의 상징성과 벽골제의 역사성·전통성을 살린 계절별, 구간별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사계절

힐링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한복체험, 짚 풀체험, 목공예 체험 등 기존 체험 외에도 전통혼례와 버스킹 공연, 자동차 극장 등 다양한 상설 체험프로그램 등도 준비중에 있다.

또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는 코로나 19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단체 청소년 위주의 운영에서 탐바꿈해, 가족 단위 숙박시설로 전환을 위해 올해 국비 6억원을 확보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강소형 잠재관광지에 선정된 아리랑문학마을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전문가 컨설팅 여행코스 개발 관광 상품화 마케팅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홍보활동을 하고 향후 아리랑문학마을 관광 매력 재창조 사업 등 관광자원개발사

업을 통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제시는 시티투어 버스를 2019년 9월 처음 시작한 이래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0년 11월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을 기념해 새만금 코스를 신설하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고 전북 투어패스와도 연계해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19시대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향후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광양시 서천 꽃길, 전남 4월의 추천관광지 선정

전남도립미술관, 광양불고기 특화거리 등과 연계된 사계절 꽃길

광양시가 광양을 서천 꽃길이 전남도 4월의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양 서천은 벚꽃부터 장미, 양귀비, 수레국화, 코스모스 등이 사계절 내내 차례로 피어나는 생명 공간이다.

여름이 내리면 아름다운 선율과 색채, 화려한 빛이 변주하는 무지개 음악분수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과 설렘을 한껏 선사한다.

이곳은 광양 대표 먹거리인 광양 불고기 특화거리가 연접해 눈·귀·입이 모두 즐거운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무엇보다 오랜 준비를 거쳐 3월 22일 개관하는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첫 특별기획전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가 8월 22일까지 열려 연계 관광지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순기 관광과장은 "백운산에서 발원한 서천은 광양의 젓줄로 사계절 내내 꽃과 음악, 낭만이 흐르는 생명공간이다"고 말했다.

이어 "연접한 광양불고기 특화거리에서 감칠맛 나는 광양불고기도 즐기고 전남도립미술관 특별기획전을 통해 영혼까지 살찌우는 1석 3조의 여행코스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는 여행 전문가, 관광 관련학과 교수 등 관광전문가로 구



성된 평가단을 통해 계절별, 주제별 관광지를 '이달의 추천관광지'로 선정하며 매월 전남도 관광누리집, 카

드 뉴스,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조식석/기자

완도군, 50억 투입 연안 바다목장 147ha 규모 조성 중

꼬막 치패·바지락 종패 방류 등으로 자원 및 소득 증대 기여

완도군은 어장 환경변화 등으로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관내 연안 어장에 어패 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50억원을 투입, 해양 특성을 고려해 수산 생물 서식 공간 제공 및 체계적 관리로 수산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군외면 동부권 원동리에서 대창2리까지이며 약 147ha 규모로 조성 중에 있다.

군은 지금까지 3년간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꼬막 모패, 바지락 종패 매입·살포와 단지 조성 예정지 모래 살포 및 경운, 환경 개선, 자원량 파악 및 환경 조사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사업 추진 4년차로 꼬막 치패 및 바지락 종패 방류와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모래 살포, 경운, 어업인 참여 사업, 효과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봉진문 부군수는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을 통해 자원 회복, 체계적인 어장 관리로 안정적인 수산 소득을 창출하고 관광지와 연계한 6차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영욱/기자



'전남형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한다

전라남도는 성장잠재력을 지닌 중소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4월 7일까지 '전남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형 중소기업 육성은 유망 중소기업 20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연간 1억원 범위에서 2년간 기업경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남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고 3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기업이다.

또한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3% 이상,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1% 이상, 고용 증가율 3% 이상,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비율 3% 이상 중 1가지 이상 달성을 요건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매출액·고용·수출비율 증가율을 기존 5%에서 3%로 낮춰 코로나로 어려운 기업의 참여 부담을 낮췄다.

또한 변화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사업 발굴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했고 발표평가도 비대면으로 진행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남형 중소기업에 선정되면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맞춤형 마케팅, 기업 성장전략 수립, 중장기 R&D과제 기획, 경영 및 품질혁신, 비대면 사업 발굴 지원 등 총 6가지 기업지원 프로그램 중 기업당 매년 2가지 이상을 지원받는다.

지원을 바라는 기업은 기업이 소재한 시군의 전남형 중소기업 육성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전남도, 시군,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원 전남도 중소기업과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지역경제를 이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유망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3기 전남형 중소기업 20개사를 지원한 결과 매출액은 1천674억원에서 2천74억원으로 고용은 579명에서 604명으로 각각 늘어 지원사업이 기업 성장 및 경영 효율화에 큰 보탬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안/기자



목포시, 결핵 없는 도시 만들기

결핵예방의 날 맞아 경로당 순회하며 기침예절 교육, 검사 실시

목포시가 결핵 없는 도시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시는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22일부터 26일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8개소를 순회하며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결핵예방 및 기침예절 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결핵 의심자 및 희망자에 대해 객담 검사를 실시해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환자 치료와 함께 접촉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는 SNS, 전광판 등을 통해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이라는 슬로건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신환자 발생률은 2011년 이후 8년 연속 감소 추세이나 2019년 2만3,821명의 신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발생률 1위, 사망률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가 전체 결핵 신환자 중 47.1%를 차지해 높은 수준으로 이에 따라 시는 매년 1회 이상 결핵검진을 권고하고 결핵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결핵예방 교육을 희망할 경우 목포시보건소 결핵관리실로 신청하면 된다.

김동일/기자

OECD 회원국 중 결핵발생률 1위, 대한민국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

생활 속 결핵예방 수칙

- 1 결핵예방 검진(건강검진, 직장/여부위 상관없이 결핵검진 받기)
- 2 기침할 땀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해남군 상수도 검침 원격으로 바꾼다

2025년까지 전체 계량기 교체, 스마트 원격검침 도입

해남군은 오는 2025년까지 상수도 검침으로 원격으로 바꾼다.

군은 관내 전체 계량기 2만 5,000대를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교체, 상수도 사용량 검침을 원격으로 실시하는 기반 구축에 나선다.

스마트 원격검침이란 기존에 검침원이 방문해 수동으로 검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원격검침 단말기를 활용, 각 가정의 계량기 값이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되면서 실시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총 사업비 79억원이 투입되며 올해는 서버 구축과 함께 해남읍·송지면 일부 지역을 우선으로 디지털 계량기 및 단말기 3,0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원격 시스템 구축으로 검침원의 업무 경감은 물론 누수 조기 발견 등을 통한 유수율 향상과 수도 원가 절감으로 연간 4억원 가량의 금액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로 수전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검침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금 부과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수전이 늘어나면서 과중해진 검침업무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스마트 원격검침 도입으로 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양영욱/기자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4차

20-50의 대위기시대 수도권 일극집중이 위험하다

수도권의 일극형 발전이 아닌 상생적 혁신 메가시티 네트워크와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균형발전 실질 전략

세종시국가균형발전센터의 정책 개발 연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50년까지는 우리나라의 대전환기이자 대위기시대가 될 것이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구를 담당한 초의수 교수는 2020년부터 향후 2050년까지를 우리나라 대전환기이자 대위기 시대인 것으로 정의하고 인구지속성, 생산가능인구 격차, 사회보장 타격, 지방소멸이 위기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2020년 기준 15.7%에서 2050년 39.8%로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이며 생산가능인구비는 2020년 기준 72.1%에서 2050년 기준 51.3%로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수도권 일극집중체제는 지역 간 격차를 가중시켜 지역의 인구 사막화와 돌봄 등 서비스 사막화를 초래하고 수도권 역시 과밀과 혼잡 등 과잉도시화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광역권 OECD 지역별빙 지수 결과 총 11개 분야 중 환경, 주거, 공동체, 소득, 삶의 만족도 등이

10점 만점에 3점대 이하로 낮았다. 특히 환경은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고 수도권의 주거지표는 우리나라 광역권 내에서도 가장 낮다고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수도권 일극집중과 지역 간 격차, 동네 및 지역의 소멸, 생활의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권, 집중, 경쟁, 생활 포기의 산업화 시대 논리가 아닌 분권, 분산, 협력, 삶의 질 중심의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확대와 분산 및 분업사회를 촉진할 행정수도 완성의 적극적 추진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해 전국을 분권·분산·분업의 다극 메가시티리전으로 만들고 이들 간 상생적 혁신 네트워크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강조했다.

또한 자립권역 조성의 유인전략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각 권역별, 시도별, 시군구별, 읍면동별 국민의 행복생활권을 보장하는 기준을 만들고 지원해 자립과 역량 중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전략의 중심에 행정수도

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일극집중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추진, 다극분산의 네트워크형 공간운영, 자치분권의 민주적 국가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는 균형발전의 패키지 프로젝트의 하나이자 모든 것의 동시달성을 위한 King Pin 프로젝트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정부부처만 있고 함께 국정을 이끌어야 할 국회기능은 없어 핵심 政體 간 소통 부족,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체제의 지연, 막대한 행정비효율의 사회적 비용 발생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3단계 전략을 통해 1단계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의 설치 2단계로 다극분산의 메가시티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 2.0의 패키지 프로젝트로 행정수도 완성 전략의 이행 추진 3단계로 국민 공감대 확산을 기반으로 한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보 추진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이 중요한 이유는 반세기의 국정과제이자

효율적·혁신적 국정운영, 다극분산의 메가시티리전의 실질적 구현, 민주적·포용적 국가실현 등에서 찾을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미국이 건국 후 각 주 간 갈등해소와 연방통합, 캐나다의 지역 간 갈등 및 통합, 호주의 주 간 화합과 통합, 말레이시아 수도권 과밀 해소 추진 등에서 보듯이 국가의 핵심문제해결과 지역 간 통합의 결과물이었다.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20-50 대전환시대를 헤쳐 갈 국가발전의 핵심과제이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추진’실시

태백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3월부터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실시하며 강원도자살예방센터와 공동으로 ‘2021년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3월~5월은 전국 평균 연중 자살사망률이 가장 높은 시기로 자살고위험군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큰 박탈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한다.

더구나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정서적·경제적·육체적 문제를 악화시키면서 자살사도 발생 위험성 증가의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특히 태백시는 60세 이상 인구에서 우울경험률이 12% 나타났으며 최근 3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인구에서 집중적으로 자살률 증가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태백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예방이 담긴 현수막 게시 및 관련 유관기관에 자살 고위험시기 관련 도움안내문 전단지 및 포스터를 배포 실시 중이며 자살수단 판매업소 23개소 대상으로 자살 위험 환경 개선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 중에 있다.

또한, 2021년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강원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철암동, 구문소동 지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건강검진을 추진하며 이 조사는 지역주민의 마음건강증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생명지킴이 교육이수를 받은 마음건강검진요원이 집으로 방문해 1:1검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후에도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살예방사업 활성화, 시민서로가 자살예방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생명존중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을 계획 중에 있다.

태백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본 사업들을 통해 태백시 지역주민들의 자살예방 및 자살률 감소 도모와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홍성에 청년농부들 왓슈’ 청년공동체의 힘 보여줘

‘충남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화 추진



홍성군에 정착한 무연고 귀농귀촌 청년들의 모임인 홍성에 청년농부들 왓슈가 출범식을 갖고 올 한해 성공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군에 따르면 22일 충남도청에서 청년공동체 10개 팀을 대상으로 ‘충남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출범식이 개최됐다.

홍성군에서는 ‘홍성에 청년농부들 왓슈’가 선정됐으며 이날 ‘왓슈’는 창업, 청년활동가, 청년멘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의 성장을 과업수행의 목표로 잡고 귀농귀촌 청년 컨설팅, 지역 내 봉사활동, 홍성정착에 필요한 적정기술 프로그램 운영 등 다채로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의지를 밝혔다.

‘왓슈’는 2020년 2월 무연고 귀농귀촌 청년들이 지역 정착의 문제점을 공동체 형성을 통해 해결하고자 결성된 비영리단체로 지난해 3월 행안부 청년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데 이어 청년공동체활성화 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선용 기획감사담당관은 “홍성에 정착한 무연고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다시금 청년들의 정착을 주도하는 일은 모든 청년공동체의 모범이 되는 일이며 이런 청년 공동체들이 지역 내에서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등을 통해 힘을 보태줄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김재중 옥천군수, 중앙부처 찾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두팔 걷어’

옥천군이 정부예산 확보를 통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재중 군수는 22일 오후 세종정부종합청사를 찾아 행정안전부를 방문하고 지역 주요 현안사업 설명과 함께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현안사업이나 국가·지방 정책협력사업, 국가적 행사 추진 등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김 군수는 재난·재해 예방, 주민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직접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에 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이평지구 낙석피해 예방사업, 향수호수길 정비사업,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공사, 금강2-4교 중

대결함 교량 보수 공사, 옥천-안남 지방상수도 연계관로 구축공사 등이다.

이날 김 군수는 이평지구 낙석피해 예방사업에 대해 지난해 집중호우로 대규모 낙석 피해를 입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추가 피해 예방이 필요하며 향수호수길 정비사업은 옥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붕괴위험지역이 존재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김재중 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지원과 국비확보가 절실하다”며 “언제든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방문해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특화 공모 사업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 다문화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사업비 1,300여만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사업비는 ‘아동요리지도사 1급 양성과정’ 및 ‘세계 전통놀이 지도사 자격증반’ 운영에 쓰일 예정이다.

속초시는 본 사업으로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과 자존감을 향상해 보다 전문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어 총 4,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데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공모에 선정됐다.

그간의 추진사업으로는 2018년 줌바&난타 프로그램과 2019년 줌바&난타 프로그램과 다문화자녀 연극놀이를 운영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취업대비 공예자격증반과 연극놀이 등을 운영으로 결혼이민자 10명 전원이 레진아트 전문가 1급 공예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내었다.

최재은/기자



고성군, 설해목 및 재해우려목 추가 제거사업 추진

고성군은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설해목 및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설로 인한 설해목 다수 발생 및 자연재해에 따른 불안감 고조에 따라 군은 생활권과 연접해 생육하고 있는 수목 중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수목을 제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150여개소 제거 완료했으며 추가 설해목 및 재해우려목 접수는 고성군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 사업은 도로·주택 등 생활권에

있으면서 주변 자연재난으로 재산과 인명 등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이다. 신청 시 담당자는 토지소유주 동의 및 건축물에 위해가 되는지, 기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지 현 지조사를 통해 제거 여부 타당성을 판단하고 결정해 벌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해우려도와 작업난이도를 파악해 제거순위를 결정하고 긴급한 재해 우려목에 대해서는 우선 제거하는 등 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이동원/기자



정선군, 농림지 돌발해충 방제협의회 개최

정선군은 24일 정선국유림관리소와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등의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지 돌발해충 방제 협의회를 개최했다.

농림지 돌발해충 방제협의회란 외국에서 유래하거나 토착 해충 중 기후변화로 인해 급속하게 증가해 농경지와 산림을 오가며 피해를 주는 해충을 말한다.

정선군은 지난해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열대겨세미나방, 매미나방 등 6종의 돌발해충이 발견되어 735ha면적을 관련부서의 협업을 통해 방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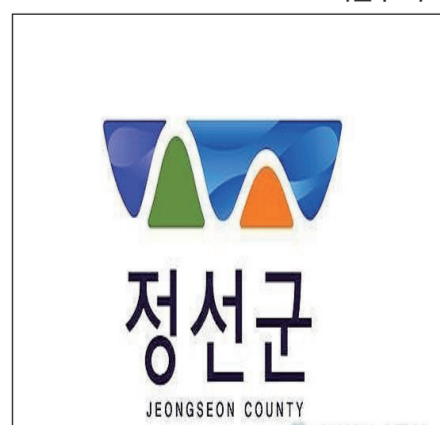
이번 방제대책 협의회는 2021년도 돌발해충 월동난 예방과 제거, 약충기와 성충기의 방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유관기관 상호간의 역할 분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했다.

또한, 전년도 갑자기 밀도가 증가한 매미나방에 관련 부서와의 발 빠른 대처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많이 줄여 농가의 호응을 얻었다.

최유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평년보다 0.5℃ 높아진 기온으로 돌발해충 발생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병해충 발생정보를 바탕으로 농가의

적극적인 방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최근수/기자



의정부시 빙상 쇼트트랙팀, 전국대회에서 첫 금메달

의정부시 직장운동경기부 빙상 쇼트트랙팀이 3월 18일~21일까지 4일간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36회 회장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쇼트트랙 유망주 김지유 선수가 여자일반부 500m에서 1위를 차지해 의정부시 직장운동경기부 빙상 쇼트트랙팀 창단 이래 첫 우승 금메달을 안겨줬다.

또한 김정민 선수 역시 남자일반부 3000m에서 기량을 맘껏 발휘하며 2위를 수상해 값진 은메달을 안겨줬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빙상 쇼트트랙팀이 2019년 창단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 대회가 많아져 선수들이 심적으로 힘들었을텐데 꾸준히 운동해 좋은 성과를 거두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스포츠선수로서 자랑스럽게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광명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육군 특전사 5명에게 표창장 수여

광명시(광명시장 박승원)는 2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광명시보건소에서 임시선별검사소 및 자가격리 물품 이송 등 중요업무를 지원한 육군 특전사 5명에게 시장 표창장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상자들은 지난해 말 코로나19가 수도권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될 때 역학조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광명시보건소에 파견된 국제평화지원단 21특전대대 소속 군인들이다.

이들은 임시선별검사소 현장 질서유지, 자가격리자 물품전달, 역학조사서 시스템 입력 및 모니터링은 물론 유난히 눈이 많이 온 겨울,

선별진료소 주변 눈 쓸기도 도맡아 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지친 보건소 직원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군인 아저씨들이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민의 안전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써주신 특전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지역사회 방역망 유지에 큰 힘이 되었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들 특전사들은 91일 동안의 군무를 마치고 23일 자대 복귀하고, 후임으로는 11공수 특전여단 군인 5명이 23일부터 파견되어 광명시 역학조사 행정업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원종균기자



한국조사료협회 회장에 영암군조사료경영체협의회장 정운태 당선

지난 18일 사단법인 한국조사료협회에서 실시한 전국회장 선거에서 정운태 후보가 3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날부로 정 회장은 4년 임기를 시작했으며 취임식은 4월 초에 있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운태 신임 회장은 “양적인 조사료 생산보다는 질 좋은 고품질 조사료 생산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며 “수입견조를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 국내 조사료를 생산하는 데 이바지해 국내 조사료 산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동안 정운태 회장은 한국조사료협회 부회장, 전라남도 조사료경영체협의회장 및 영암군 조사료경영체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다가 금회 전국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남출기자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제20기 청소년운영위원회 'O2' 위촉식 개최

지역 청소년들의 산소 같은 존재로 자치활동 주도 포부 밝혀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20일 청소년들의 자치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제20기 청소년운영위원회 'O2'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12명의 위원들은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를 거친 후 선 발됐으며 앞으로 1년 동안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및 프로그램을 자문·평가하고 다른 기관의 청소년운영위원들과 함께 교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하영 위원장은 “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자긍심을 가지며 우리의 참여는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청소년 자치활동의 산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임양희 인구교육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활동해 온 청소년운영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배우 권세현,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남양주시는 22일 시장 집무실에서 배우 권세현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배우 권세현은 2019년 중국 유명 영화사 상하이아태영화공사의 초빙 배우로 선정돼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발돋움하며 글로벌 배우로 성장하고 있는 유망주로 최근에는 월드 슈퍼스타 코리아 모델 콘테스트 2021에서 선으로 뽑히고 포토제닉상도 수상하는 등 모 델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조광한 시장은 “배우 권세현의 일선월보하고 있는 모습과 도전 정신

이 수도권 거점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시의 현재와 매우 유사하다”며 “앞으로 남양주시 홍보대사로서 활약해 주실 모습이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배우 권세현은 “교통, 공간, 환경의 3대 혁신을 추진하며 무서운 속도로 도약하고 있는 남양주시 홍보대사가 돼 매우 자랑스럽다.

남양주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면서 시의 우수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홍보대사로서 각오를 밝혔다.

최정근기자



AI 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도시

오산

광명문화재단, 2021년 경기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선정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 극단 명작옥수수밭과 함께 다양한 기획 공연 추진 예정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 극단 명작옥수수밭과 함께 선정되어 광명시민회관에서 올 한해 다양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의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지역의 공연장을 거점으로 우수한 예술단체가 상주하며, 단체의 예술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꾀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다.

광명문화재단은 2020년 12월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로 매칭하여 경기문화재단 본 사업에 지원하였고 일반 상주단체로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 지역상주단체로 극단 명작옥수수밭이 선정되어 두 단체와

함께 올 한해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광명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는 예술감독 김보람을 중심으로 2011년 창단된 순수예술단체로 '몸'을 통해 음악과 춤을 표현하며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진실된 언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020년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에 이남치와 출연하여 SNS를 통해 6억 뷰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최근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무용단체로 주목받고 있다.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는 2020년에도 광명시민회관 지역상주단체로 선정되어 지난 11월 광명시민회관에서 '피버'라는 신작을 발표하였고 전문가와 관객에게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2021년에도 레퍼토리 공연, 안무 워크숍, 신작 발표 등 광명

시민회관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2021년 지역상주로 함께할 극단 명작옥수수밭은 2005년 극작가들이 창단한 단체로 15년간 창작극 50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대학로를 중심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올해 지역상주로서 광명시민회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연극 워크숍과 신작 발표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광명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계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명시민회관과 공연예술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공연예술단체와 상생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코로나 19에 대비하며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군산시립합창단, 제104회 정기연주회 '신나는 봄' 개최

군산시립합창단 제104회 정기연주회가 열리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립합창단은 봄 햇살이 따스한 오는 4월 1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멋진 추억이 될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제104회 정기연주회는 '신(新)나는 봄'이라는 주제로 지치고 힘든 이 시기에 활력을 더하고자 기획됐다.

프로그램으로는 '봄날(방탄소년단)', '누이', 뮤지컬: 'DreamGirls', 'Feel Good' 등 K-pop과 뮤지컬, 영화음악 등 그 누구도 만들어 내지 못했던 탁월한 음악적 해석과 환상적인 합창사운드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연주회를 위해 특별게스트 '에시트'의 아카펠라를 신비로운 무반주 합창음악의 매력을 대중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객석 간 거리두기를 충분히 준수했으며 공연 티켓은 전석 무료로 초등학생 이상 입장할 수 있고 티켓링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군산시립합창단의 공연을 통해 지속적인 거



리두기로 힘들고 지친 군산시민들에게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털어내고 위로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술단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시민들에게 음악으로 힐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현태/기자

장흥문화원, 국역 보림사 중창기 재판본 발간

장흥문화원이 '국역 보림사 중창기'의 발간 소식을 알렸다.

'국역 보림사 중창기'는 조선 후기 180년간 250여 회의 불사를 세세하게 정리한 일지식 기록이다.

불교문화사와 향촌사회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보림사는 문림의향 장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대 역사의 큰 뿌리라 할 구산 선문 종찰로서 국보와 보물 등 총일신사시대를 상징하는 성보유산이 즐비한 천년고찰이다.

그 같은 법맥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도 이어졌음이 이 '국역 보림사 중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국역 보림사 중창기'는 1658년부터 1955년까지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1658년부터 1838년까지 180년간의 기록으로 246항목에 이른다.

각종 건물의 중수나 신축, 단청, 번외, 불상, 부도, 범종, 석탑, 불기, 불화 등 각종 불사 내용과 기문, 그리고 시주, 공사, 권화, 별좌, 묵수, 화원, 장인, 화주, 주지 등 참여자의 명

단을 적고 있다.

보림사 중창 불사 기록을 통해 조선 후기 보림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리라 기대된다.

아울러 장흥 향촌사회와 연계망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역 보림사 중창기' 재판본에는 중창기를 자세하게 분석한 '조선 후기 장흥 보림사중창기의 고찰' 논문과 조선 초기 보림사 사적기의 국역 해설문과 함께 미국 하버드대 연경도서관 소장 필사본 원본 사진 등을 함께 실었다.

보림사 사적기 국역은 조계총림 송광사의 방장인 남은 현봉스님이 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1910~30년대의 유리관사사진 64장을 함께 실었다.

보림사 기록과 사진 등이 망라되어 백과사전이라 할 만하다.

'국역 보림사 중창기'는 2001년에 전문가들의 참여에 힘입어 장흥문화원에서 발간해 사찰 문화사는 물론 향촌 사회사의 이해에도 길잡이로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찰이나 건축, 조각 등 관련

학계에서도 중요한 원전 자료로서 인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사정상 많이 보급을 하지 못했고 시일도 지나서 출판 재발간 논의가 있어 왔다.

장흥문화원에서는 '문림의향 장흥 고전국역사업'을 해오고 있어 유가 문집은 물론 사찰 문화 자료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차에 여건이 마련되어 '국역 보림사 중창기' 재판본을 추진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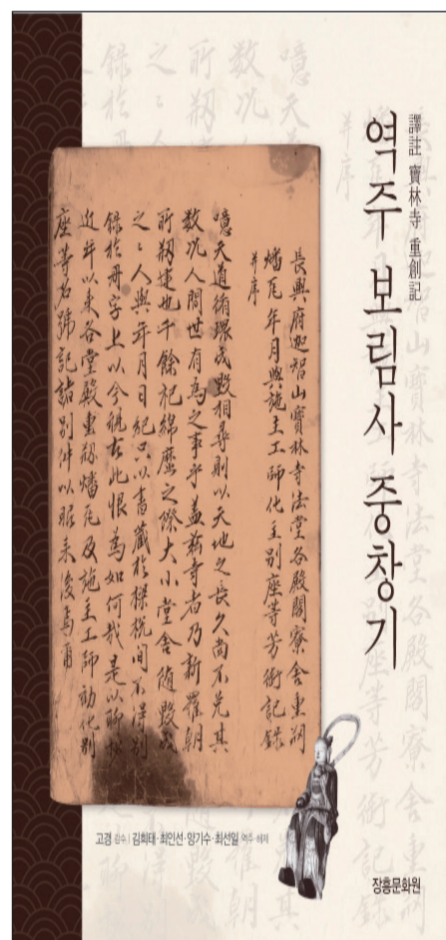
처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성과를 내셨던 전문가들이 이번에도 참여했다.

고경 송광사 성보박물관장, 양기수 장흥향토사회장, 김희태 전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최인선 순천대교수, 최선일 문화재감정위원이다.

고영선 장흥문화원장은 "'국역 보림사 중창기'를 학계와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해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장흥 문화 역사 관련 고전과 자료를 꾸준히 조사하고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창길/기자



경북도서관, 세계의 아름다운 도서관 사진展 개최

사진작가 임영균 작품, 10개국 20개 도서관을 생생하게 감상

경북도서관은 대한민국 1세대 사진작가 임영균의 '세계의 아름다운 도서관 사진展'을 3월 23일 ~ 4월 25일까지 5주간 경북도서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풍스러운 유럽의 도서관을 포함한 세계 10개국, 20개의 도서관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지난 6년간 12개국 50여곳을 촬영한 사진 중 엄선한 작품으로 전시를 구성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도서관인 오스트리아 아드몬트 수도원 도서관, 독일 고전주의의 메카이자 괴테가 50년간 재직했던 바이마르 안나 대공비 도서관, 종교적인 박해로 사라졌다가 복원된 천년 역사의 스페인 살라만카대학교 도서관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주간 기간 중 작가가 촬영한 사진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와 작가는 왜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주목했는지, 촬영을 하며 겪은 에피소드 등 도서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관람객과 함께 이야기하는 특강을 진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상철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서관이 지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확실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이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직접 그 아름다운

공간에 머무르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세계의 아름다운 도서관
임영균 작가

3. 23.㉔ ~ 4. 25.㉔
13:30 ~ 17:30
경북도서관 기획전시실

드라큘라 두 번째 라인업 선보여

뮤지컬 <드라큘라>가 1년여 만에 4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오는 5월 18일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리는 뮤지컬 <드라큘라>는 1897년 발행된 아일랜드 소설가 브램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를 기반으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여인만을 사랑한 드라큘라 백작의 이야기를 아름답고 애절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오리지널 크리에이티브와 국내 최고의 창작진이 협력하여 브로드웨이와는 또 다른 새로운 버전의 한국 프로덕션을 탄생시켰으며, 2014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초연 시 매 티켓 오피스마다 예매처 서버를 다운시키는 열광적인 반응으로 개막 후 2개월 만에 10만 관객 돌파라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특히 강렬한 조명, 스펙타클한 무대장치와 100% 수작업으로 완성된 화려한 의상 등 170분간 눈을 땔 수 없는 압도적인 무대와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뮤지컬 <드라큘라>는 오는 5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관객과 만난다.

전순희/기자



물류운송분야에 AI, IOT 등 결합돼 자동화 바람 분다.

물류운송분야 특히출원 지난 10년간 연평균 6% 증가세

인천시, 올해 20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용 지원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배송을 위한 물류 센터, 분류 작업, 물류 입고 또는 하역을 자동화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과 결합된 스마트 물류창고 스마트 분류 및 피킹 시스템, 배송트럭 내 자동 하역장치 관련 출원도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 등 비대면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최근 10년간 물류운송 기술분야의 특허 출원이 연평균 6% 증가했다.

지난 10년전 대비는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에 따르면 택배 등 물류 운송 분야의 특허 출원은 물류산업이 성장하면서 '10년 78건에서 '19년 131건으로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물류운송분야 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특허출원된 물류 운송 분야의 특허 925건 중에서 물류 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특허는 총 339건으로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차지하는 비율로도 '10년 28%에서 '19년 53%까지 증가해 물류 공정을 자동화하는 특허 출원이 전체 물류운송분야 출원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이 물류공정에 결합돼 기술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년부터 AI, IOT 기술이 접목된 물류 공정을 자동화하는 특허가 출원되기 시작됐고 '19년까지 지난 5년간 총 32건이 출원됐다.

물류과정은 보관, 분류, 피킹, 포장, 상하차, 배달 등 순으로 이어진다.

초기 자동화 기술은 설비시설 자동화에 집중됐지만, 이제는 물류 전 과정에서 자동화 기술이 결합되고 있다.

AI, IOT 등 기술접목이 가속화되고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트렌드가 자리 잡으며 자동화 기술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로 AI산업이 성장하며 비대면 물류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신규자본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벤처캐피털 등은 투자자들

은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배달로봇 등 20여개 기업에 60억 달러를 집중 투자했다.

스위스 기술기업 ABB사가 포장로봇 IRB 390 플렉스팩터 개발 및 도입에 나섰다.

포장로봇은 물류창고 '픽 앤 플레이' 작업을 자동화하면서 전체 라인 효율 극대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부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컨베이어 등을 포함하는 이송장치 관련 출원이 4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하역·입출고 장치와 관련된 출원이 153건, 물품의 분류·피킹·피킹: 분류된 물품, 또는 분류하면서 물품을 집어서 목적한 위치로 옮기는 작업·포장과 관련된 장치가 107건 등 순이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488건으로 물류 운송 분야 출원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외국인 128건, 대학·연구기관 97건이며 대기업에 의한 특허출원은 91건이다.

물류 운송장치를 직접 제작 및 설치하는 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의 출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제어기계심사와 김명찬 심사관은 "앞으로는 물류 작업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물류 공정에 AI,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접목하는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류 자동화와 관련된 연구개발과 더불어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치용량 300W, 600W 설치 시 최대 90% 지원으로 자부담 10%

인천광역시 3월 24일부터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0년까지 인천시 총 1,751가구에 태양광 656.7kW를 보급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기여했다.

인천시는 올해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약 200가구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시 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태양광 300W, 600W 중 1세트 선택해 설치 가능하다.

신청세대에는 세대 당 용량별 설치비의 80% 범위 내에서 시 및 구에서 지원하며 10가구 이상 동일용량으로 단체로 신청 시 10% 추가 지원이 가능해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먼저 '2021년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

여업체' 중 신청자가 1개의 시공업체를 선택하면 참여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설치장소에 방문해 설치여건을 확인하고 이후 계약체결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사는 곳의 해당되는 구청 에너지담당부서에 사업신청 및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미니태양광의 장점은 300W 설치 시 월 평균 발전량으로 양분형냉장고를 이용 가능하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베란다나 옥상 등 유휴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설치 업체는 설치 시점부터 5년 간 무상하자보수를 보장해 사후관리를 이행하고 있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거주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며 시민참여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사용 활성화가 가능한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대구시, 세계 16개 도시와 '뉴노멀 시대를 향한 스마트시티 전략' 논의

권영진 대구시장, 코로나 극복 경험과 뉴노멀 시대 준비하는 대구시 스마트시티 주요 전략을 전 세계 소개

권영진 대구시장은 3월 23일 오후 5시, 타이베이에서 개최되는 '2021 스마트시티 써밋 & 엑스포' 행사의 온라인 포럼에 참가해 세계 16개 도시와 '뉴노멀 시대를 향한 스마트시티 전략'을 논의한다.

2014년부터 8번째 대만 타이베이 현지에서 개최되는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행사인 '2021 스마트시티 써밋 & 엑스포'의 일환으로 주요 도시 정상회의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타이베이시와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참가를 추진하던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참가가 무산되었으나, 올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커, 원저' 타이베이 시장의 요청으로 권영진 시장이 포럼 발표자로 나서게 됐다.

'20년 행사 규모 : 1,250개 부스, 4만명 관람. 400여명 연사 참여, 영국, 미국 등 45개국 도시 대표 참가이벤트 행사는 타이베이 시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체코 프라하 시장, 터키 앙카라 시장, 헝가리 부다페스트 부시장 등 13개국 17개 도시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뉴노멀 시대의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타이베이시에 이어 두 번째로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는 대구시 5+1 신산업과 스마트시티'란 주제로 발표한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QR코드 출입자 관리',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등 대구시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을 소개하고 코로나 이후 뉴노멀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시의 회복 탄력성 극대화가 필요하

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상 회복, 경제 도약,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이를 위해 5+1 대구 미래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대전환이라는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대전환의 근간이 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기업과 연계한 '휴스타 프로젝트'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대구시 스마트시티 분야의 대표적인 중점과제인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교통체계'와 '대구 원네트워크' 구축과 기대효과도 발표한다.

이 밖에 수상알파시티 테스트베드 조성, 국가 실증도시 선정,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인증 등 대구시 스마트

시티의 성과와 함께 다양한 도시 데이터 통합허브 구축 계획 등 대구시 스마트시티 비전과 전략을 전 세계 16개 도시와 공유하고 홍보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행사는 3월 23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45분까지 105분간 웨백스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에서도 생중계 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 다양한 도시 정상들과 뉴노멀을 향한 스마트시티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해외도시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영/기자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 적극 지원' 약속

(주)이씨스·자동차융합기술원 현장방문

군산시가 미래형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군산공장을 준공하고 최근 생산을 개시한 (주)이씨스와 이씨스의 투자를 이끌어 낸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찾아 주요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미래형 자동차산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군산의 지역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업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이씨스를 차례로 방문해, 친환경·스마트 자동차산업 육성 및 투자계획 등 성장전략 보고 및 주요 시설들을 살펴봤다.

(주)이씨스는 자동차 전장부품과 자율주행차 무선인터넷장치 전문제조기업으로 지난 2019년 군산시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산업단지 1만

9,834㎡ 부지에 35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준공, 올해 1월부터 본격 가동 중에 있다.

또 군산지역 인력을 중심으로 120명을 신규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주)이씨스의 군산 투자를 이끌어 낸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자동차 분야 공인시험기관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군산시의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기업 육성과 전문기업 유치 등에 힘을 쏟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이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군산형 일자리 사업과 더불어 미래형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더 먹고가' 한채아, "시아버지 차범근에게 더 살가운 며느리 되고파" 시부모님 향한 존경심 전해!

"아버님에게 조금 더 살가운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배우 한채아가 시아버지 차범근을 향한 남다른 존경심을 드러내며, 훈훈한 가족 에피소드로 따뜻한 웃음을 선사했다.

21일 방송된 MBN 푸드멘터리 예능 '더 먹고 가(家)' 20회는 평균 2.0%, 최고 2.8%(닐스코리아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 순항을 이어나갔다. 이날 방송에서는 3년 만에 복귀 시동을 건 한채아의 봄맞이 하루가 펼쳐졌다.

봄을 맞아 새 김치를 준비하는 임지호-강호동-황제성과 함께 작업에 돌입한 한채아는 시아버지 구두 굽이 통째로 빠져버린 돌발 '몸개그'로 현장을 폭소케 했다. 이후 '올산 5대 미니설'을 언급하는 강호동에게 한채아는 "예능 편집 효과로 내가 직접 얘기한 것처럼 나왔는데, 이후 내가 '5대 미니'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등장들의 움직임이 활발했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쪽파, 달래, 냉이, 씬바귀 등 각종 김치를 손식간에 완성한 후 한채아는 임지호-강호동-황제성을 위한 점심을 차려냈다. 시어머니표 음식과 고급 식기에 담은 정갈한 한상과 함께, 친정어머니가 직접 만든 범킨을 얹자 완벽한 테이블 세팅이 이뤄졌다. 처음 맛보는 독일 가정식에 강호동은 "차범근 감독이 선수 시절부터 드셨던 식단 아니냐, 기운이 그대로 느껴진다"며 감탄했다. 이때 한채아가 앉은 의자마저 '박살'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한채아에게 '예능신'이 강림했음을 알렸다.

이후 한채아는 "결혼 후 한동안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신혼 초에 아버님과 함께 운동을 할 때는 '내가 차범근 감독님과 단둘이 운동을 하더니'라는 감동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또한 차범근의 '술너바보' 면모와 '프로 육아' 솜씨를 자랑했고, "아버님이 나를 정말 예뻐"



하시는데, 마음처럼 살갑게 대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결과 속이 늘 같고 시고 가지런하신 아버님을 본받고 싶다"며 존경심을 드러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겨우내 땅에 묻혀 있던 김장독을 정리했다. 사과 호미로 땅을 파 독을 꺼내던 중, 한채아의 '아는 오빠' 조재윤이 등장했다. "아침마다 생 들기름으로 가급을 하며 독소를 빼낸다"며, 기인 면모를 드러낸 조재윤은 오자마자 '들기름 파워' 막걸리 향아리를 빼내는 작업에 합류했다. 이어 그는 능숙한 삼

질과 곡괭이질로 독을 빼낸 후, 과실나무 묘목을 똑딱 심어 박중훈에 이은 '일꾼' 면모를 특특히 보여줬다.

임지호는 한라봉 껍질을 넣은 불동 물김치와 한라봉 밥, 말린 도무묵과 도지 조림, 돼지 등심구이 등 저녁 준비에 몰입했다. 주방을 찾아온 '요리 마니아' 조재윤은 임지호의 요리 과정을 지켜보며 행복해했고, 임지호는 "도마를 교체할 시점이 온다면 하나를 선물해 주면 안 되냐"는 조재윤의 조심스러운 요청에 즉석에서 도마를 선물했다. 이후 황제성

에게 도마를 자랑하러 간 조재윤은 즉석에서 '명품 배우'들의 상향극을 펼치며 차진 호수를 발산했다.

드디어 찾아온 저녁 식사 시간, 임지호는 "한채아의 상큼한 미래를 위해 한라봉을 주재료로 사용했다. 연기자와 엄마, 며느리로 모두 완성될 것이라는 의미의 저녁 밥상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숟가락을 뜯 때마다 모두가 새어 나오는 웃음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밥 한 그릇을 추가해 식사를 '리셋'하는 한채아의 모습에 "이곳을 찾아온 여배우 중 가장 잘 먹는다"는 강호동-황제성의 정찬이 이어졌다.

밤이 깊어가자 한채아는 "육아가 쉽지 않다. 출산 후에 산후우울증을 겪었고, 시댁에서 몸조리를 하면서 진정만마 생각이 많이 났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야기를 들은 임지호는 "그 시간을 통해 채아 씨가 굉장히 성장했고, 앞으로가 더욱 멋진 것"이라며 진심이 담긴 위로를 건넸다. "한채아는 오펜, 조재윤은 루비 같다"는 임지호의 잘때 비유에 분위기가 고조되며 따뜻한 하루가 저물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예능신'과 함께, 한채아와 조재윤의 털털한 입담과 끈끈한 우정이 기분 좋은 에너지를 안긴 한 회였다. 시청자들은 "오랜만에 만난 한채아 씨의 미모에 '개안했습니다'" "부러진 구두 굽에 피식 웃고, 두 동강 난 의자에 쓰러졌네요" "차범근 감독님에게 이럴 게 스위트한 면모가 있다니, 흥미진진한 이야기 너무 잘 들었어요" "제성 씨의 연기를 '리셋'하는 조재윤 배우의 모습이 참 멋졌습니다" "채아 씨, 앞으로 '워킹맘'으로 더 승승장구하길 바라요!" 등 응원을 보냈다.

임지호-강호동-황제성의 힐링 푸드멘터리 예능 MBN '더 먹고 가'는 매주 일요일 밤 9시 20분 방송한다. **전순희/기자**

'라디오스타' 황혜영, 투투 행사비 하루 최고 1억 '스케줄 부자' 시절 배고팠던 반전 비화! 투투 해체 후 우울증 겪었다?



그림 투투 출신 방송인이자 100억 매출 쇼핑물 CEO 황혜영이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하루 최고 행사비가 1억에 이를 정도로 바빴던 투투의 전성기 시절, 스케줄은 부자였지만 끼니를 때울 돈이 없어 배가 고팠던 '반전 비화'를 고백한다.

이어 황혜영은 투투 해체 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었다며 이를 이겨내고자 시작한 인터넷 쇼핑물이 매출 100억 원 규모로 커졌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연예인 쇼핑물 1세대' 성공기를 들려줄 예정이어서 호기심을 유발한다.

오늘(24일) 밤 10시 30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기획 강영선 / 연출 강성아)는 다사다난한 인생 1막을 마치고 핑크빛 인생 2막으로 다시 사는 4인 이계인, 김준호, 황혜영, 랄랄과 함께하는 '생 어게인' 특집으로 꾸며진다.

1994년 그림 투투로 데뷔한 황혜영은 트레이드 마크인 무표정한 얼굴과 인형처럼 감쪽한 춤 솜씨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투투는 '일과 이분의 일', '그대 눈물까지도' 등을 히트시키며 그해 여름을 뜨겁게 달궜다.

황혜영은 "서태지도 우리를 인정 했었다"라며 투투의 전성기를 되돌아본다. 이어 "하루에 스케줄을 12개까지 했다"며 바빠진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차, 오토바이는 물론 보트와 헬기까지 이용했다고 밝힌다.

황혜영은 "계산해보니 당시 하루 최고 행사비가 1억이었다"며 스케줄은 부자였지만, 정작 바쁜 일정을 소화한 투투 멤버들은 따로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힘든 생활을 했다고 반전 비화를 들려줘 '라스' 깜짝 놀라게 했다는 전언이다.

투투로 화려한 인생 1막을 보낸 황혜영은 쇼핑물 CEO로 변신해 인생 2막을 보내고 있다. 황혜영은 쇼핑물을 시작한 계기가 '우울증 탈출'을 위한 이었다고 고백한다.

투투 해체 후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었다는 황혜영은 "4년 전 집 밖을 안 나왔다. 움직여 보자는 생각으로 쇼핑물을 시작했다"며 '쇼핑물 CEO' 변신 과정을 들려준다. 특히 도매상에 가기 전 청심환을 먹었던 초보 시절 비화부터 100억 매출을 성할 수 있었던 비법까지 들려줄 예정이어서 호기심을 끌어올린다.

"100억대 매출 CEO"도 피할 수 없는 '육아 전쟁' 일상도 공개한다. 황혜영은 2011년 당시 민주통합당 전 부대변인 이던 김경록과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출산했다. 황혜영은 쌍둥이 두 아들을 안고 엮고 화장실에 간 육아 애환을 들려주며 "남편이 산후우울증이 왔다"면서 "셋째 계획을 물으니 스스로 공장문을 닫고 왔다"고 깜짝 고백해 시선을 강탈할 예정이다.

황혜영이 공개하는 그림 투투의 반전 비화는 오늘(24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라디오스타'는 MC들이 어디로 뺨치 모 르는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게스트들을 무장해제 시켜 진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독보적 토크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정동희/기자

'보쌈-운명을 훔치다' 5월 1일 첫 방송 확정, 2차 티저 영상 공개!

MBN '보쌈'이 오는 5월 1일(토) 첫 방송을 확정 지으며, 2차 티저 영상(<https://tv.naver.com/v/19057572>)을 전격 공개했다.

MBN 중편 10주년 특별기획 '보쌈-운명을 훔치다'(극본 김지수·박철, 연출 권석장, 제작 JS픽처스·이엘라이프/이하 '보쌈')는 광해군 치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생계형 보쌈꾼이 실수로 웅주를 보쌈하며 펼쳐지는 로맨스 사극이다. 19일(오늘) 공개된 영상엔 생계형 보쌈꾼 바우(정일우)의 아들 차돌(고동하)의 시선으로 아버지가 보쌈해온 웅주수경(권유리), 그녀를 연모해온 대엽(신현수), 그리고 권력의 대적점에 있는 이이첨(이재용)과 광해군(김태우)의 이야기가 임팩트 있게 담겼다.

하늘 아래 가족이라곤 단 둘뿐인 바우와 아들 차돌. "자식 새끼 목숨 걸린 일에 애비라는 작자가 못할 것이 없다"는 바우는 아들을 위해 가리는 일 없이 해왔고, 그중 하나가 바로 '보쌈'이다. 차돌은 그런 아버지를 위해 망이라도 봐주는 착한 아들. 그런데 바우가 일생일대의 실수로 웅주수경을 보쌈하고 만다.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이들 부자는 수경의 눈엔 "무엄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만들 정도로 낯설다. 이런 세 사람이 어떻게 180도 달라진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지는 '보쌈'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이번 영상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또 한 사람은 바로 이이첨의 아들 대엽이다. 마음에 품었던 수경이 정치적 밀약으로 형과 혼인하게 되면서, 첫사랑이 형수가 된 가슴 아픈 로맨스의 주인공이다. 이뤄질 수 없는 여인을 향한 순애보와 출중한 무예 실력으로 형이 궁투 사자 진수경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할 예정이다.

대복과 수장 이이첨과 광해군의 낯선 대립은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반드시 찾아야지, 찾아서 거짓을 참으로 만들면 된다"는 이이첨의 섬뜩한 얼굴은 '살아있는' 수경에게 죽을



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광해군은 자신의 자리를 옥죄어오는 이이첨으로 인해 이성을 잃고 폭주한다.

이에 MBN은 "생계형 보쌈꾼 바우의 실수 한 번으로 악연인 듯 선연인 듯 엮힌 바우, 수경, 대엽부터, 권력 다툼의 중심에 선 이이첨과 광해군까지, 모든 인물들이 송두리째 뒤바뀐 운명을 마주하게 된다"라며, "MBN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사극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다. 오는 5월 1일 남녀노소 전 연령층이 함께 할 수 있는 몰입도 높은 이야기로 안방극장을 찾아가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MBN '보쌈'은 오는 5월 1일 토요일 첫 방송된다. 본방송 시작 동시에 국내 대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wave)가 OTT 독점 공개한다. **최만식/기자**

'오! 주인님' 작가 "이민기X나나X강민혁, 캐릭터 싱크로율 99%" 만족

3월 24일 수요일 밤 9시 20분 첫 방송되는 MBC 새 수목미니시리즈 '오! 주인님'(극본 조진국/연출 오다영/제작 넘버스리픽처스)은 연애를 '안' 하는 남자와 연애를 '못' 하는 여자의 심장 밀착 반전 로맨스다. '소울메이트', '안녕, 프란체스카', '운명처럼 널 사랑해' 등 많은 이들의 인생학을 탄생시킨 조진국 작가의 특별한 동거 로맨스로 방송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 주인님'에는 연애를 '안' 하는 남자 이민기(한비수 역), 연애를 '못' 하는 여자 나나(오주인 역), 한 여자를 향한 일편단심을 보여주는 완벽남 강민혁(정유진 역)이 등장한다. 이들 세 배우는 반짝이는 매력으로 극 중 특별한 로맨스를 그려낼 것이다. 제작진 모두 만족한 세 배우의 조합이라고.

조진국 작가는 "최고의 드라마 작가 한비수는 까칠하지만 알뜰하게 보이지 않아야 하며, 날카로운 독설을 퍼붓지만 듣는 시청자들에게는 카타르시스를 줘야 하는 어려운 캐릭터다. 이민기는 캐릭터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갖고 있으며, 몰입력과 내공이 상당한 배우"라고 남자 주인공 한비수 캐릭터와, 그를 연기하는 이민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조진국 작가는 여자 주인공 나나에 대한 만족감도 표현했다. 조진국 작가는 "로코핀" 오주인은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포스를 내뿜어야 하며, 화려한 외양 뒤에 인간적인 따뜻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성숙함이 배어있는 캐릭터다. 나나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매력적으로 표현해낼 줄 아는 타고난 배우"라고 설명했다.

또 조진국 작가는 극 중 로맨스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캐릭터 정유진과, 정유진 역을 맡은 강민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진국 작가는 "비주얼 아티스트 출신 화장품 회사 이사" 정유진, 누가 봐도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하며 기품과 귀여움이 동시에 묻어나야 하는 캐릭터다. 강민혁은 영민한 캐릭터 분석력을 지녔으며 눈부신 활약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진국 작가는 "이민기, 나나, 강민혁 세 배우와 캐릭터의 싱크로율은 99%다. 저는 100%라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1%는 시청자분들께서 애정으로 채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진국 작가의 세 배우를 향한 애정이 느껴지는 답변이기에 더욱 드라마가 기대된다.

한편 2021년 봄 당시의 마음을 따뜻한 설렘을 채워줄 MBC 새 수목미니시리즈 '오! 주인님'은 3월 24일 수요일 밤 9시 20분 첫 방송된다. '오! 주인님'은 IQIYI International에서 3월 24일(수)부터 방송과 동시에 전세계 서비스를 하며, 각 회 별로 방송 직후 볼 수 있다. 해외 유저는 IQ.com를 접속하거나 애플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IQIYI International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최재은/기자



정동희/기자